

碩士學位論文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독서지도 방안 연구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文 善 熙

2004年 8月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독서지도 방안 연구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文 善 熙

文善熙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 초록>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독서지도 방안 연구

문 선 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문 성 숙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독서지도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독서지도 방안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문학작품에 한정되어 지도된 경우가 많다. 사례들 또한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연구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력 신장'과 '독서' 과목의 교육목표인 '폭넓은 독서를 통한 독해능력 신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영역의 텍스트를 이용하여 교육현장에 적용, 독서교육의 본질에 맞는 독서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 독서교육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독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 보았다. 연구자는 우선 독서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7종의 '독서'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교실 수업에서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재 중심·내용 중심이 아닌 목표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론은 실재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실재는 학습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대하는 언어자료에 충실해야 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매체에 실린 언어자료를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자는 이러한 독서교육의 현실을 감안하여, 올바른 독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학습자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 중심의 통합적 독서교육, 매체를 통한 독서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는 의미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 언어의 실제적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고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학습활동을 창조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는 읽기지도의 최종단계인 창의적 독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헌조사와 연구를 통해 창의적 독서지도 원리와 창의적 독서학습 전략 방안을 고찰하였다.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창의적 읽기는 글 내용에 대한 독자의 사고작용의 확산 방법으로, 주어진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독서의 전 과정(읽기 전과 읽기 중, 읽기 후)에 걸쳐서 그 의미를 재구성하고 확장하며 통합해나가는 데 역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읽은 내용을 토대로 독자가 새로운 생각을 전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쓰거나 말하기와 통합적으로 지도했을 때 그 효과가 최대화 된다. 이를 위해,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의 과정에 따른 독자 사고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독서교육의 현 위치와 독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추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실천했던 여러 가지 독서지도 방안을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았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방안으로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도표나 그래프 만들기, 자료 탐색하기, 독서퀴즈·퍼즐·게임 활용하기, 사건과 닮은 신문기사 찾기, 읽으면서 감상 따라가기 등), 인물 이해를 위한 활동(인물 탐구표, 인물망, 인물 비교, 작중인물과 닮은 꼴 찾기, 인물시화전), 형식의 변환(큐레이터가 되어 활동하기, 나레이터가 되어 활동하기), 비판적 활동(토론하기, 논술하기), 매체를 이용한 활동 등으로 나누어 작품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글을 다루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고, 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략적으로 창의적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과정에서 적절한 활동을 선택해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각 학습 단계별로 교사의 확산적 발문을 제시하고 독후활동이나 사후질문에 관련하여 토의수업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 결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읽기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 사고가 자유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독서수업의 내용은 글 속에 담긴 내용 파악이 아니라 글을 올바르게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때, 작품의 인지적 단계뿐만 아니라 내면화 단계까지 이어져 실제 언어생활로 연결될 수 있었음은 물론 독서교육이 추구하는 삶 읽기교육,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II. 독서교육의 위치와 지향점	9
1. 교육과정과 교과서	9
2. 독서교육의 지향점	12
III. 창의적 독서지도의 원리와 전략	18
1. 창의적 독서지도 원리	18
2. 창의적 독서학습 전략	21
IV. 독서지도 방안의 실제	27
1.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	28
2. 인물 이해를 위한 활동	58
3. 형식의 변환	74
4. 비판적 활동	84
V. 결론	95
참고 문헌	98
〈Abstract〉	102

표 목 차

<표 1> ‘그래프 만들기’의 사례	30
<표 2> 교수-학습 지도안 (외국문학)	31
<표 3> ‘도표 만들기’의 사례	34
<표 4> 교수-학습 지도안 (비문학-음악영역)	35
<표 5> ‘도표 만들기’의 사례	39
<표 6> ‘읽으면서 감상 따라가기’의 사례	57
<표 7> ‘인물 탐구표’의 사례	60
<표 8> ‘인물망 만들기’의 사례	63
<표 9> 교수-학습 지도안 (한국문학)	64
<표 10> ‘인물 비교하기’의 사례	69
<표 11> ‘등장인물과 닮은 꼴 찾기’의 사례	71
<표 12> 교수-학습 지도안 (비문학-미술, 인물영역)	76
<표 13> 교수-학습 지도안 (영상매체-영화)	82

그림 목 차

<그림 1> ‘자료 탐색하기’의 사례	41
<그림 2> ‘독서퀴즈 · 게임’의 사례	47
<그림 3, 4, 5> ‘형식의 변환’의 사례	75
<그림 6, 7, 8> ‘영상매체 활용하기’의 사례	80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로서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시대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이 요구된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되고 유능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질을 풍부하고 운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식사용 기술이 필요하다. 이의 해결은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독서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고도의 지적 능력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독서는 문자언어를 통해서 글쓴이가 제시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신과정이다. 독자는 독서과정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와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결합하며 글 전체의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독서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독자 자신의 인생 체험과 삶의 양식, 사회적 맥락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때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지식의 생산 능력 및 활용 능력, 창의적 능력, 풍부한 상상력, 올바른 가치관을 획득할 수 있다. 이처럼 독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인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제6차 교육과정(1996-2000)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학습, 토론 수업을 통한 사고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어 국어교육을 제자리에 정착시키려 하였다. 국어과는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늘렸으며, '독서'를 읽기의 심화과정인 선택과목으로 두어, 독서교육을 내용과 방법 면에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의 독서교육은 이전에 비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 독서지도 방

법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독서교육이 국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며, 지나치게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의 관심을 독서 외적인 것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 달리 영상세대들이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느끼며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순간순간 만족한다. 이처럼 변화된 세대들은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를 통해 정보도 빠르게 전달받는다. 그래서 다양한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네들의 생각은 거의가 남의 생각을 빌려왔거나 흉내만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에서 있어 아주 빈약한 상대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고교육으로서의 독서교육이 독서지도 이론에 바탕을 두어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독서활동은 독자와 텍스트와 독서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출하는 인지적이며 사회적인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직결된다.

따라서 평생 독서생활의 기반이 되는 학교의 독서지도에서 먼저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자율적 독서습관을 형성시켜 책 읽는 태도를 생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학생들을 살아있는 독서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독서활동은 재미있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생각하는 독서'의 능력과 습관을 길러 깊이 있게 사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감상 표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문자표현에 국한된 획일적인 독후감 쓰기 지도에서 벗어나 역할 놀이나 드라마, 탐구 활동 등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독서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 책을 읽으며 적절한 자료를 선정, 수집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독서감상을 표현하여 동료학생들과의 토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학습자 중심의 학생 주도적 독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양한 표현 기회를 제공해 독서과정에서 필자와 글,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역

동적인 사고를 심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독서 후 감상을 표현하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이유로 책만 읽는데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독서 표현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책을 읽으며 이루어진 사고과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그것까지가 독서이며 이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바로 독서는 '주어진 정보자료를 편집, 가공해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사고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¹⁾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통합하고 비판하고 재생해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보다 다양한 영역의 작품을 읽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을 때,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학생 개개인의 긍정적인 성장 도모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업에 적용하여 글을 다루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고, 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실제언어 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신의 배경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분석, 비판,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개인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고 창의적 학습능력을 지닌 사려 깊은 독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독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독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인지심리학의 영향으로 교육의 중심이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바뀌었음은 물론, 스키마 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

1) 형지영(2001), 『통합적 독서교육(상)』, 인간과 자연사, p.44.

발히 이루어졌다. 스키마 이론과 관련하여 독서행위에서 독자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육학 분야에서는 초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초인지란 자신의 인지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읽기 과정의 점검, 자기조절 능력, 문제해결의 모색, 자기평가와 자기성찰 등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으로 독서의 심리적 과정과 이 과정에 동원되는 기능 또는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고 넓어졌다. 이는 독서지도를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²⁾,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독서' 과목이 신설되는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할 독서지도 자료와 지도 모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일련의 열린교육 운동, 학습자중심 교육, 과정중심 교육 등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독서 흥미를 고조시키기 위한 독서교육 내용과 지도 모형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 논문과 관련 있는 독서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고력 증진에 관한 연구이다. 독서는 곧 사고과정임을 인식하고 사고력 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경향은 주로 독서와 사고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비판적인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시영(1999)은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지도 방안 연구'에서 국어과 교육과 사고교육에 관한 설문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에서 사고력 신장은 읽기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즉 교사의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발문이 수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토의식 수업으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쓰기와 통합 지도했을 때 쓰기의 과정이 배가되어 사고력 신장에 효과적임을 입증하

2) 독서지도에 관련한 1990년대 이후의 주요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 ① 손정표(1995), 『독서지도 방법론』, 학문사.
- ② 김정일(1997), 『독서교육론』, 일조각.
- ③ 조영희(1998), 『독서지도의 효율화 방법론』, 신아 출판사.
- ④ 조영식(1999),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열린 독서지도』, 인간과 자연사.
- ⑤ 허덕희(1999),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어린이 독서교육』, 인간과 자연사.
- ⑥ 손정표(1999), 『신독서지도 방법론』, 태일사.
- ⑦ 허재영(2000), 『교양인을 위한 독서기술』, 박이정.
- ⑧ 김효정 외(2000),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 ⑨ 형지영(2001), 『통합적 독서 교육(상, 하)』, 인간과 자연사.
- ⑩ 김용철(2002),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태일사.
- ⑪ 박이종(2003), 『학생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학사.
- ⑫ 한국독서학회(2003), 『21세기와 독서지도』, 박이정 등이 있다.

고자 하였다.

임경일(1998)은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안 연구'에서 제6차 교육과정 독서 교과를 중심으로 그 체제가 실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읽기지도 방안으로 조별 토의방법을 제시, 평가방법으로 논술을 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의한 학습과 조별 토의 수업의 활용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읽기지도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명숙(1995)은 '창의적 사고를 수용한 초등문학 연구'에서 문학교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문학언어의 새로운 의미 형성을 돕는 창의적 사고, 작품세계의 새로운 의미 구성을 돕는 창의적 사고, 문학세계의 내면화 과정을 돕는 창의적 사고로 구분하고, 이러한 창의적 사고를 생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극성, 활동성, 개방성을 들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학교육의 목표 설정, 문학수업에 적용할 문학이론 적용틀 제작, 개별성, 상호작용성과 통합성을 중심으로 한 활동적 수업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최향임(1992)은 '국어 교과서에서의 비판적 사고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에서 국어 교육이 언어능력 신장을 위한 교과이고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 사고력 교육이 언어교육에서 갖는 함의를 언급하였다. 또한 언어 활동 각각과 비판적 사고능력과의 관련을 살펴보면서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독서는 단순히 글의 내용을 수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에 입각하여 글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분석, 비판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연구로 독서를 통한 사고력의 중요성 인식, 독서교육을 통해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다음으로 읽기 과정 중에 도움이 되는 활동 유형을 소개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3) 노명완 외(1988), 『국어교육론』, 갑을출판사.
박영목 외(1995), 『국어교육학 원론』, (주)교학사.
박수자(1994),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자료원.
이재승(1996),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최현섭 외(2001),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노명완 등은 읽기 과정 중에 독자의 사고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유형을 사실적 질문, 해석적 질문, 적용적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학습자가 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며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교사의 수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숙한 학습자는 질문유형에 답을 하면서 교사가 보여주는 사고활동의 시범에서 단서를 접할 수 있으며, 이것을 자신의 사고활동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박영목이나 이재승, 최현섭 등은 읽기 과정에 적합한 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박영목은 학습지를 이용한 읽기학습 활동 안내 제시 및 토의학습을 강조하였고, 이재승은 독서 기록표 작성 및 다른 장르로 바꾸는 활동 해보기 등을 제시하여 독자와 글의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둔 인지전략 중심의 접근법을 보완하였다. 글을 읽고 독자와 독자가 만나서 서로 토의를 하거나 텍스트와 텍스트를 비교, 변환시키는 활동들을 제시하여 읽기 후 과정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박수자와 한철우 등은 읽기 과정을 전·중·후로 구분하지 않고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타 연구자들과 구별된다. 박수자는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인지전략 외에도 초인지전략을 강조하였다. 한철우 등은 읽기전략과 관련된 이론과 하위전략 및 구체적 지도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자들과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독서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독서지도 모형을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는 현장의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선은 독서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독서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독서지도에 어떤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결(2000)은 '중학생을 위한 독서교육 연구'에서 오늘날의 중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가장 큰 독서장애 요인은 독서교육의 부재와 열악한 독서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의 독서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서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독서감상 표현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독서지도의 효율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독서흥미 유발과 독서동기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독서량이 저조한 우리 현실에서 독서 흥미유발을 통한 독서생활화가 선결 과제임을 확신하고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열린 독서교육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섭⁴⁾은 국어과 읽기 영역의 주된 요소 및 읽기 제재가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읽기수업을 위해 국내외의 읽기수업 모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 모색이라는 점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송계령(2000)은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에서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밀한 계획과 관찰을 통해 이러한 상호작용이 독서과정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독서교육의 위치와 문제점을 진단, 교사와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독서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독서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치고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연구 결과가 없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사례에 적용하였을 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가 없어 효과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본질이나 이론적인 규명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 교육현장에서 독서교육 방법을 고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지도방안에 관련된 사례 역시 실질적인 사례보다 기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선택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사례 또한 한국문학 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폭넓은 독서를 통한 독해능력 신장’에 해당하는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양한 독서지도 방법들이 갖는 교육적 의의와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이론이 독서활동의 실제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폭넓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독서교육의 본질⁵⁾에 맞는 독서지도 방안을 모

4) 최현섭 외(1993), “초등학교 국어교과 수업모형, 수업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과교육연구회.

5) 삶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내면화

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서교육의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7종의 '독서'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교실수업에서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재 중심·내용 중심이 아닌 목표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론은 실재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실재는 학습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대하는 언어자료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7종의 독서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독서의 실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독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둘째, 독서는 책 속에 수록된 정보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또한 작가와 독자간의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이며, 독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적 활동이다. 이에 문헌조사와 연구를 통해 창의적 독서지도 원리와 창의적 독서학습 전략 방안을 고찰하고, 나아가 창의적 독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의미를 재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과정으로서의 독서활동은 고도의 사고과정으로서, 바람직한 독서체험의 제공은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개발한다. 이에 연구자는 창의적 독서지도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독서지도 시 감상 전 활동, 감상 중 활동, 감상 후 활동으로 나누어 지도하고자 한다. 지도대상은 제주 시내 '○○○ 독서문화원'에 다니는 중학교 1, 2, 3학년 12명의 학생들로, 다양한 영역의 필독 2권과 단편문학 읽기를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연구기간은 1년 동안 매주 1회씩 월 4~5회의 100분 수업으로 50주 동안 독서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의도적인 독서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자료에 관한 사고력을 촉진시켜 주고,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힘을 길러줌은 물론, 독서교육의 최종목표인 평생 독서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 논의의 제한점으로는 평가의 문제이다. 이 연구를 위한 실제 독서지도는 학교현장이 아닌 독서문화원에서 시행된 관계로, 공식적인 평가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힌다. 독서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독서상담 자료로 활용하거나 독서지도 방법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독서평가의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후속 연구로 삼고자 한다.

II. 독서교육의 위치와 지향점

1.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은 지식과 정보를 중시하는 21세기 지식·정보 기반사회를 염두에 둔 교육과정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열린 교육, 수준별 교육, 체험 학습, 수행평가 등 새로운 교육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독서' 과목 또한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이를 구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가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수준별 차이를 반영하여 이에 따른 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독서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학습 과정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독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독서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과목이다. 이의 내용체계는 크게 '독서의 이론'과 '독서의 실제'로 구성되는데, 독서의 이론은 '독서의 본질'과 '독서의 원리', '독서의 태도'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독서의 본질'에서는 독서의 특성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교수·학습의 중심이 되고, '독서의 원리'에서는 독서의 준비, 독해, 독해과정의 인식, 독서와 학습방법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리 및 전략에 관한 절차적 지식이 교수·학습이 주요 내용이 된다. 또한 '독서의 태도'에서는 독서에 관한 정의적 특성인 동기, 습관, 태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서 상황에서 실제로 글을 읽는 교수·학습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제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습자 주도적 교육이 교실수업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재중심이나 내용중심이 아닌 목표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은 실재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고, 실재는 학습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대하는 언어자료에 충실해야 한다. 과거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독서' 교과서들이 취했던 체제들, 이를테면 독서 이론과 실재를 따로 제시하는 체제, 독서행위에 관한 일반론적 진술로 이루어진 체제, 또는 명문(名文) 중심의 선집 체제 등은 더

이상 유효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독서의 실제>를 교과서가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했는지 검토해 보기 위해, 연구자는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서'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⁶⁾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으로서 '이론'과 '실제'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는 관계란 원리를 활동에 녹아 들어가게 하고, 활동은 원리를 이해하고 숙달하게 하는 것으로서 규정되는 관계를 뜻한다. 즉 교과서 단원체제가 '실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과서를 통한 학습자의 독서활동이 일상생활에 기반한 언어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학습자들이 졸업 후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는 동안에 수행하게 될 독서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연계된 주제와 영역에의 관심과 동기형성을 돕는 체험을 조성해 준다는 의미이다.

'원리와 활동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상의 내용체계를 '독서의 실제' 국면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즉 '본질'과 '원리'와 '실제'와 '태도'가 평면적으로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교육목표 초점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도를 보이는 교과서가 우한용 외 2인 공저 <독서>와 최지현 외 1인 공저 <독서>이다. 이 교과서들은 6개의 대단원 체제를 취하고 있다.⁷⁾

전자의 경우 대단원은 문제상황에 따라 설계되었다. 이러한 단원구성은 독서의 본질과 방법, 유형, 효과, 환경, 목표 등에서 하위 독서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심화시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놓여 있는 독서의 문제상황이 각기

6)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김봉군 외 7인 공저, 금성출판사
- ② 노명완 외 2인 공저, (주)교학사
- ③ 박영목 외 2인 공저, (주)교학사
- ④ 송하춘 외 2인 공저, 박영사
- ⑤ 심재기 외 4인 공저, 중앙교육
- ⑥ 우한용 외 4인 공저, 민중서림
- ⑦ 최지현 외 1인 공저, 천재교육 (이상 '가나다' 순)

7) <우한용 외 2인 공저, 『독서』>

- I. 독서란 무엇인가, II. 성공적인 독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III. 글에 따라 독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IV. 독서로 어떤 삶과 경험을 성숙시켜 갈 것인가, V. 독서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VI. 어떤 독서인이 될 것인가.

<최지현 외 1인 공저, 『독서』>

- I. 독서의 이해, II. 정보 획득을 위한 독서, III. 태도 강화를 위한 독서, IV. 심미적 체험을 위한 독서, V. 학습을 위한 독서, VI. 독서 체험 심화.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순차적으로 진행될 단원학습이 다인수 학습의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후자는 '목적에 따른 독서'를 대단원 구성의 준거로 삼고 있다. 이는 '독서' 과목 자체가 심화과목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적 독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원 구성은 동일한 글이 학습자의 독서목적에 따라 정보 획득이나 태도 강화를 위한 독서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도출된 독서전략이나 절차가 글의 유형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에 따른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본계도에 오른 1997~8년 이후로, 독서교육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국어과 '독서' 교과서에서 취했던 '문종' 위주의 체재 선정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영역' 자체가 '문종'이 아닌 '내용 영역'을 중시하고, 완결되지 않은 글을 제시문으로 실어 추론과 비판적 능력까지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긴 글에 대한 적응 능력까지 강조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매체에 실린 언어자료, 이른바 '다매체 언어자료'를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현실의 언어생활에서 복합적인 언어관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서환경을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독서' 교과서는 현실의 영역별, 유형별, 매체별 언어자료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영역별, 유형별, 매체별 읽기를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매체별 언어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점이라 하겠다. 사실 '문종'으로 분류되어 온 양식들을 제외하고는 주로 광고, 만화, 시나리오 등에 치중되고 있었다.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라는 점에서는 '자막', '인터넷 신문이나 게시판(등을 비롯한 여러 형식의 언어 자료들)', '(영화평 등을 비롯한) 각종 매체비평', '그래프, 지표, 통계자료 등', '삽화, 사진, 영화', '포스터'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왕의 언어자료 가운데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논문', '색인', '서지', '노래가사', '낙서', '대자보', '전단' 등도 더 다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

8) 최지현(2002),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독서 교과서의 편제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이는 필연적으로 독서의 범위가 '읽기'에서 '보기'까지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서의 동기 및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실제적인 독서 활동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 역시 '독서의 태도'를 강화하여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생활 속의 독서와 독서를 통한 인생설계,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삶의 연계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대사회 이후 보통교육의 강화로 문맹률이 낮아지고, 한글전용 정책으로 기초적인 글 읽기 능력이 향상되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읽을 수 있는 힘은 얻었으나, 분주한 사회생활, 독서에 대한 흥미상실 등으로 실제로는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이 많아졌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실제로 읽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독서생활화는 실천 제시가 중요하다.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모임을 조직하며, 독서계획을 세우고, 독서록을 남기는 방법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숙달되어야 한다. 비록 독립된 단원으로 이 부분이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단원의 학습활동에서 이를 반영하여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에게는 독서생활화가 학습 독서와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술한 활동들을 학습 독서와 관련지어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서는 해당 교과목의 학습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사회과 공부를 하는 데에도 독서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활용하면 사회과 공부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는 국어과 읽기시간, 독서 시간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 교과, 학교 교육의 전 장면과 상황에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과서가 차시별·단원별 교수·학습활동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의 실제'가 제대로 교수·학습되기 위해서는 '독서의 이론'에서 학습한 원리를 바탕으로 재확인 하거나 결합시키는 내용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독서교육의 방향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고 자극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습활동이 창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창조적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서지도의 방향을 설

정할 필요가 있다. 독서지도의 방향으로 첫째, 학습자 중심의 독서교육, 둘째, 활동 중심의 통합적 독서교육, 셋째, 매체를 통한 독서교육을 설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자 중심의 독서교육

학습자 중심의 독서교육은 먼저, 학습자들의 '개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지닌 개성을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게 독서활동과 독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할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때 학습에 흥미를 보이고 보다 능동적으로 임한다. 획일화된 학습내용으로 일관하는 현재의 학습활동과 비교할 때, 이는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유발, 촉진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다. 자발성이 존중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 각자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이른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음은 물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회가 된다.

독서교육의 목적이 독립적인 독자를 육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학생들이 혼자서도 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수업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비록 처음에는 혼란을 겪기도 하고 수업이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학생 중심의 수업을 통해 자기에 대한 신뢰감(self-esteem)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서 증진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독립적인 독자, 유능한 독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보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독서는 결국 혼자서 하는 행위지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의 활동은 모두 언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언어학습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소집단 활동을 중요시하고 토의·토론 학습을 적극 활용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서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간의 비교를 통해 자기중심성 탈피 기회도 주어지며 학습자가 서로를 자극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2) 활동중심의 통합적 독서 교육

언어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은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다. 우리는 말을 함으로써 쓰기를 배울 수 있고 듣기를 함으로써 읽기를, 읽기를 함으로써 말하기를 배우게 된다. 즉 통합적 독서교육은 언어기능이 통합된 상태로 지도되어야 한다.

언어기능의 통합적인 지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읽기와 쓰기간의 통합지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몇몇 연구 결과를 볼 때,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했을 때, 학생들은 학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읽기와 쓰기 간의 통합을 강조한다고 해서 듣기나 말하기 활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하게 되면, 당연히 말하기나 듣기 활동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는 모두 의미구성의 과정이며,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독자(작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신념, 경험과 만나는 과정에서 의미가 창조된다. 즉 의미는 텍스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의 기억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텍스트의 각 부분들을 서로 관련짓고 또한 자신의 기억, 지식과 관련지음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읽기에서도 작자를 고려해야 하고 쓰기에서도 독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는 모두 의사소통 행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읽기와 쓰기는 모두 사고작용 행위이다. 지금까지 읽기와 쓰기간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읽기(쓰기)를 가르치면 쓰기(읽기) 능력이 향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들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읽기를 통해 사고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쓰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 읽기도 잘 하고 쓰기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듣기와 말하기의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사고행위가 따른다는 점에서, 읽기 능

력이 뛰어나면 듣거나 말하기 능력도 뛰어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언어기능간의 관련성이 많다는 것은 이들 기능들이 모두 사고작용이라는 데 공통적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기능간의 관련성이 무조건 이들 행위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사고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견해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흔히 읽기 수업에는 글을 읽는 데 초점을 두지만 모든 언어행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사고는 읽기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으며 쓰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읽기수업에서 읽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언어기능이 효과적으로 통합될 때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⁹⁾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통합적인 독서교육이라 함은 언어 기능 간의 통합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과와 통합, 가정과 학교, 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언어와 다른 예술매체와의 유기적인 통합을 강조해 실제 삶 속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

독서 체험을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기화하는 기회는 사고의 기회로 연결되고 이 사고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가 신장되며 독서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 독서지도 시에는 의미 있는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언어교육을 해야 한다. 효과적인 언어학습을 위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합적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통합을 기해야 한다. 글을 '읽고', 때로는 연극 대본을 '쓰고', 때로는 연극을 실연하는 등 '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해 통합적 독서활동의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매체를 통한 독서교육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언어활동 능력은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는 물

9) 이재승(1997), 『국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p.403~405.

른 컴퓨터, 영화, 텔레비전, 광고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층위의 텍스트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의 범주를 책이라는 인쇄된 발간물에만 한정시킬 수 없다. 인쇄된 출판물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만화, 컴퓨터 등의 멀티미디어 같은 다양한 매체까지도 독서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매체 환경에 의해 '읽기'에서 '보기'로의 변화나 하이퍼링크에 따른 비선조적 글읽기는 독서 방법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다매체 시대의 독서교육은 '책읽기' 교육만이 아니라 '매체 읽기', '문화 읽기', '일상 생활 읽기'이며 '삶 읽기'로 확대해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사회로서 정보가 급속히 시행되고 소비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핵심적인 정보는 언어적 자료의 형태로 생산·유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핵심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언어적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끌어 갈 학습자들은 정보통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역시 국어과 교수·학습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 세계, 필요와 요구, 개인차, 지역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특성 및 전통'을 고려하여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읽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길러 주어야 할 언어 활동능력도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다매체 환경에서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학습순서를 결정하고, 자신의 학습과정 및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선택 및 조작 능력이 필요하다. 즉 일종의 자기주도적 독서전략 및 초인지적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이퍼' 상태에 빠져 길을 헤매지 않고, 필요한 정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 과목의 교과서를 보면 다양한 매체 및 매체언어를 활용하여 독해활동을 수행하도록 내용 설계를 해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학습수단들의 확보를 위해 각 교과서들이 어떤 고려를 했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접근의 통로를 열어 두었는지는 분명히 살피기 어려웠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은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연구 방안 모색이 시

급하다.

따라서 문자언어의 이해라는 일상적 읽기를 넘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인간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책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 문화를 바르게 읽고, 보고, 표현할 줄 아는 사고력과 습관을 길러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창의적 독서지도 원리와 전략

1. 창의적 독서지도 원리

1) 창의성의 의미

창의성의 개념은 연구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정의된다. 임선하는 “창의성은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이다.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란 유용성을 가진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집단적 사고가 아닌 개인적 정신작용이며 인성에 한정된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제반 정신적, 행동적 특성을 포괄하는 말”¹⁰⁾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창의력이란 특별한 사람들만 지니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사고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영은 “창의성이란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통찰과 사고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아이디어나 형태, 관계양식 및 해결방법을 산출해 내는 능력으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의 하나”¹¹⁾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창의적 사고의 개념¹²⁾은 한 측면에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창의적 사고는 지적능력으로서의 사고기능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과 정의적 특성으로서의 사고성향인 민감성, 자발성, 독자성, 근면성, 호기심,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구성 요인으로 한다. 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 창의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적능력으로서의 사고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창성’은 특정한 문제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양적인 사고능력을 말한다.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지를 나타

10) 임선하(1995), 『창의성의 초대』, 교보문고, p.15.

11) 이영(1992), 『창의적 동작 교육』, 교문사, p.63.

12) 형지영(1999), “창의성 신장을 위한 통합적 독서 활동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대학원, p.7.

내는 정도로서 반응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의 양에 관한 요인이다. 창의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독창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사고를 산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과정에서 사고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이 산출하는 단계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질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융통성’은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시켜 다양한 해결책을 찾거나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사물이나 현상들간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다.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접근에 의해 해결을 보는 것은 그만큼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창성’은 기존 지식의 통합이나 재구성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창의적 사고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고의 독창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보다 의미있고 질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교성’은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잘 알려진 이야기의 단순한 삽화나 그림 등을 가지고 이를 윤색하여 표현함으로써 길게 꾸며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세분화하는 활동이다. 은연중에 떠오르는 거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발전시켜 훌륭한 아이디어가 되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활동은 창의적 사고의 최종적인 산출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정의적 특성으로서의 사고성향인 ‘민감성’은 주변의 환경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탐색 영역을 넓히려는 특성을 말한다. ‘자발성’은 문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산출하려는 성향이나 태도로, 주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지하기, 칭찬이나 상과 같은 외적인 보상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독자성’은 자신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으려는 성향이나 태도이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라도 이를 계속 발전시키거나, 문제 상황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의식적으로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근면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다.

‘호기심’은 항상 생동감 있게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문을 갖고 끊임없는 질문을 제기하려는 성향이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내 자신이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발적인 태도이다. 혁신적인 생각을 수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기존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창의적 독서지도 원리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독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다양한 창의적 사고가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창의적 독서를 위한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독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적 독서는 단순한 문자해독이나 의미전달이 아니고 독자가 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고 통합,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새로운 결과를 산출해 내는 사고활동임을 알아야 한다. 독서 지도의 최종단계인 창의적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을 통해 이를 독서과정에서 습관화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둘째,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창의적 사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학습자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정된 학습방법을 강요한다거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창의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창출한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독서활동 풍토가 조성될 때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독서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독서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읽은 내용과 정보를 초월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발문 기술이 연구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반응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확산적(발산적)발문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이 교수-학습 활동의 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으로 독서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사용이 사고력의 신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넷째, 창의성은 기존 지식이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산출된다. 그러므로 독서의 전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경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합시켜 생각하고, 관련짓고, 연결시키며, 재구성하고 결합하고 종합해 보는 가운데 새로운 사고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창의적인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주어 더욱 강화시킨다. 창의적인 독서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창의적 사고과정이나 활동의 결과에 대해 격려와 칭찬을 해줌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¹³⁾

2. 창의적 독서학습 전략 방안

글이 작가에 의한 개성적 창조의 산물이라면, 이를 읽는 것 또한 독자의 개성적 재창조이다. 창의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독서의 전 과정에서 그 의미를 재구성하고 확장하며 통합해 나가는 데 역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독서활동은 독자와 텍스트와 독서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출하는 인지적이며 사회적인 활동일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직결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작품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전략 방안이 필요하다.

1) 읽기 전 독자 사고의 활성화 전략

첫째,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읽는 것과 관련된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좋다. 연상하기는 읽기 이해의 첫 단계에서 선행지식을 회상하고 그것을 활성화함으로써 글 속에 들어 있는 정보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이러한 배경지식은 모호한 단어의 해석, 문장간의 추론, 예측, 정교화를 돕는다.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거나 연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그 글

13) 한철우(2001), 『과정중심 독서지도』, 교학사, p.119.

과 관련하여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을 브레인스토밍해 볼 수 있다. 서사적인 글에서는 특히 장면이나 인물을 보고 관련장면을 상상해 보게 하거나, 글의 어떤 내용을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이전에 읽었던 다른 글과 비교해 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시켰을 때, 학생들은 그 책에 대해 보다 흥미를 갖게 되고 내용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둘째, 독서 전에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추측해 본 다음, 글을 읽으면서 추측한 내용과 글의 실제 내용을 비교하게 한다. 그리고 끝까지 읽고 난 뒤에 저자가 말한 내용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입증해 보게 하는 절차를 거치는 예측의 과정도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수좋은 날」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본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읽어 가면서 자신이 처음에 예측한 내용과 맞는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제목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제 전개 내용에 차이를 둬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이러한 차이를 통해 보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과제를 미리 한번 살펴보면서 예측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의 독서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예측한 것에 대해 토의를 하는 것은 서로의 합리적인 사고과정들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¹⁴⁾ 모든 시간에 정확한 예상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많은 훌륭한 예측들은 필자의 의도와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필자는 때때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포함하여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싶어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예측이 맞든 틀리든, 자신의 예측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다. 또한 예측해 보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끌어오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과 자신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연결짓게 한다.

셋째, 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얻기 위해 지도를 살펴보며 준비하는 것이

14) 이 내용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교사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추론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다. 둘째, 교사는 추론하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추론과정을 시범 보인다. 셋째, 학생들의 추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백지상태에서는 추론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넷째, 글을 읽으며 내용을 앞이나 뒤의 사건과 관련지으며, 그에 따른 근거를 말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즐거운 여행의 길잡이가 되듯, 책을 읽기 전에 미리보기를 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책을 사거나 읽기 전에 앞뒷면, 제목, 저자의 이름, 두께 등을 미리 살펴보거나 편지를 받고 뜯어보기 전에 주소와 발신자, 봉투의 크기와 무게, 용지의 형식, 필체 등을 미리 보고 상당부분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미리보기의 한 형태이다.

제목이나 그림을 보고 글의 단락을 인지한 후 각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고 글 속에 있는 이름이나 수, 날짜, 눈에 띄는 단어들을 주목한다. 이것은 글의 장르, 문맥, 제재, 난이도, 글 조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미리보기는 빨리 읽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정보를 가정하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내용을 연관시켜 봄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능력을 길러서 자신들에게 소개된 책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읽을 수 있게 된다. 글을 전부 읽지 않고도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독자의 사고를 활성화시키고 능동적인 읽기 자세를 갖게 한다.

2) 읽기 중 독서전략

첫째, '중심생각 찾기'로 이는 비판적 읽기, 창조적 읽기를 비롯한 다양한 읽기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읽기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글의 중심생각은 핵심어 찾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글에서 중요한 내용과 관련된 단어는 반복해서 사용되는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재이며 일반적으로 제목으로 드러나게 된다. 제목의 효과와 기능에 대한 지식도 중심내용 찾기에서 중요한 기반지식이다. 또한 제재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찾는 것도 글의 중심생각을 찾는 방법의 하나이다.

둘째, 글을 읽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구조를 예측하는 것은 읽기 전에도 필요한 활동인데, 글을 읽어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도록 한다.

글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특히 설명적인 글은 보통 다음 다섯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시간 순서구조, 일련의 사실이나 생각을 순서대로 나열한 열거구조, 둘 이상의 사람, 사물, 사건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

이점을 서술한 비교-대조구조, 어떤 사건이 원인과 결과를 밝혀 놓은 인과관계 구조, 어떤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한 문제-해결구조 등이 그것이다.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구조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읽기는 어떤 종류의 질문을 제기하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이나 삽화 등을 보고 이 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글을 읽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들 질문을 유지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질문하기를 통해 학생들은 읽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고 계속적으로 글에 관심을 갖고 읽게 될 것이다.

넷째, 필자는 쓰고 싶은 내용이나 사실을 모두 글로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에 필자가 생략한 내용을 보충해 가며 읽어야 한다. 즉 주어진 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뒤 상황을 고려하여 그 글의 의미를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추론의 수준을 나눈다면 표면적 추론과 심층적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문장, 그리고 앞이나 뒤의 문장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것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글의 전체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추론을 말한다.

추론의 종류로는 인물이나 장소, 배경에 대한 추론, 문장 간의 생략된 추론, 단어의 의미 추론, 이어질 내용의 추론 등이 있을 것이다. 어떤 종류의 추론이 필요한가는 글의 종류나 글을 읽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단, 추론을 할 때는 항상 그 추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¹⁵⁾

다섯째, '메모하기' 방법이 있다. 글을 읽어 나가면서 적절히 표시를 하면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괄호를 하면서 읽으면 중요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 밑줄을 긋는 것 이외에 그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여백에 간단

15) 가령, "아침에 기상 예보를 들었다. 나는 장화를 신고 외출하기로 했다."라는 두 문장 사이에서 독자들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정보가 생략되어 있지만, 자신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추론하여 이해할 수 있다. 추론의 또 다른 근거는 문맥을 포함한 글의 단서가 있다. "기말 고사를 쳤다. 수학이 제일 어려웠다."라는 글에서 독자들은 '수학'을 앞에서 말한 '기말 고사'의 한 종류로 해석할 수 있다.

히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메모하기를 통해 학생들은 글을 읽는 데 지루함을 덜 느끼게 되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념들간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¹⁶⁾

3) 읽은 후 독서활동 전략

첫째, '요약하기'가 있다. 요약은 전체적인 짜임과 맥락 속에서 글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활동이다. 이는 읽기 전에 만들어진 질문들과 연결지을 때 유용하다.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글 내용의 중요성 판단,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의 구분, 각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중요내용의 재조직 등 많은 독해기능들이 종합적으로 동원된다. 요약하기는 한 문단 이상의 글에서 각 문단의 핵심어나 중심내용을 찾아보고, 이를 관련되는 것끼리 묶어 가면서 중심내용을 간추리는 활동이다.

이를 교수·학습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요약하기 규칙들을 알려 주는 것이 좋은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떤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에 전체 항목을 하나의 단어나 구로 대체한다(수영, 파도타기 → 수상 스포츠). 둘째, 글에 나타난 주제 문장을 찾아 요약에 이용한다. 주제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없앤다. 반복되거나 사소한 정보는 없애야 한다. 끝으로 요약문을 다듬는 과정으로, 접속어를 보충하거나 머리말이나 맺음말을 쓰고,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

이러한 '요약하기'는 글의 내용 이해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읽은 후 심화전략의 핵심이 된다.

둘째, '비판적 읽기'가 있다. 이는 읽기를 통하여 독자가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읽은 내용에 대한 독자의 생각을 관련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그 비판의 폭이 넓다. 제목이나 제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필자의 관점, 글의 구성, 내용이 포함되며 글의 자료가 되는 정보의 신빙성이나 기타 자료의 적절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16) 이재승(1997),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p.265~274.

필자가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적절성, 공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과 적절성은 정보의 출처와 믿을 만한 근거의 제시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타당성과 공정성은 필자의 태도가 얼마나 공정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자료의 적절성 판단하기란 필자가 글을 쓸 때에 근거로 사용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주장을 증명하기에 합당하게 선택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타당한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주장과 적절하게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창조적 읽기'로 이는 글 내용에 대한 독자의 사고 작용의 확산 방법이다. 글 속에 새로운 정보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측면에서 유용할 것인가 판단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주로 쓰거나 말하기와 관련시켜 지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읽은 내용을 토대로 독자가 새로운 생각을 전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읽기지도의 최종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⁷⁾



17) 한국교원대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1996), “교원양성대학의 교과교육학 교재개발연구”, 한국교원대, p.188.

IV. 독서지도 방안의 실제

활동중심, 탐구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언어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최대한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내용교과를 통합한다. 주어진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가 책을 읽고 특정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통해 이들의 학습은 자연스럽게 확장, 통합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 학생들은 읽기교육을 통해서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를 배우며 쓰기교육을 통해서 또한 읽기를 효과적으로 배우게 된다.

이에 연구자는 학생들의 독서자료에 관한 사고력을 촉진시켜 주고, 또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실제 독서지도에서 읽기 행위에 대한 목적, 읽기 과제의 성격, 읽는 방법으로서의 전략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반 지식들을 활용하여 의미 창조의 주체로서 효과적인 독서전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상 전 활동, 감상 중 활동, 감상 후 활동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첫째, 독서 전에는 학생들의 선행지식을 활성화하는 질문을 사용하고, 읽는 목적을 명시하며 글 내용에 대해 예측하게 하였다. 또한 작품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여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도록 했다. 작중인물의 모습 상상하기, 작중인물 또는 중심소재에 대한 경험 꺼내기, 작품의 제목을 알려주고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하기, 앞부분의 이야기를 대강 들려주고 글의 전개 부분과 결론 상상하기, 글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나 다의어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독서 중에는 예측 정도를 비교해 보고,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문장은 문맥 단어나 구조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했다.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였는데 글 전체의 줄거리와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인물의 성격, 인물 구조 파악하기, 단어나 문장 학습하기, 글의 갈래 이해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셋째, 독서 후에는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고 토론하여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지식 넓히기, 주변의 일이나 인물에 대입하기, 더 나은 해결방안과 결말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나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 정리하기 등 다양한 독서 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작품에서 하나의 고정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읽고 동료들과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토의수업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으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관련되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묻는 질문, 작품의 내용에 대한 질문,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을 준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활동방안으로 이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 인물 이해를 위한 활동, 형식의 변환, 비판적 활동 방안을 모든 작품에 적용했다. 각 활동마다 활동의 의의과 사례를 기술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의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지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실었다.

이는 연구자가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지도방안을 실제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해 본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의도적인 독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서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 월 2권의 필독과 단편문학 읽기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며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의 언어활동을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언어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활동 방안을 통해 지적 사고력과 창의력, 탐구력이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 학생 개개인이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1.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

작가에 의해서 창조된 작품구조는 독자의 이해와 감상에 의해서 파악되고 수용될 때 작품으로서의 참다운 존재가치를 부여받는다. 이때 독자는 단순히 작가의 의도나 글의 의도를 찾아내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읽는 대목마다 스스로 반

응하고, 이것을 그의 의식 속에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독서한다는 것은 글 속에 감추어진 작가의 의도만을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독자의 의식 속에서 글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독서는 글을 읽는 지적 행위이므로 글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자의 해독이라는 문면적 수준의 독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선행지식이나 스키마, 경험 내용 등과 관련시켜 가며 이해하고 추리해야 한다.¹⁸⁾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활용한 구체적 지도방안으로는 도표나 그래프 만들기, 자료 탐색하기, 독서퀴즈·퍼즐·게임하기, 사건과 닮은 신문기사 찾기, 읽으면서 감상 따라가기 등이 있다.

1) 도표나 그래프 만들기

(1) 활동의 의의

독자들은 글의 내용과 관련한 그림을 그린다거나 도표를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을 동원해 구조적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읽은 내용과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연결시켜 브레인스토밍함으로써 정보를 활성화하며 조직화, 구조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학생들은 읽은 내용을 구조화시켜 정리하는 가운데 정보를 서로 관계 짓고, 통합하며 현재의 연결망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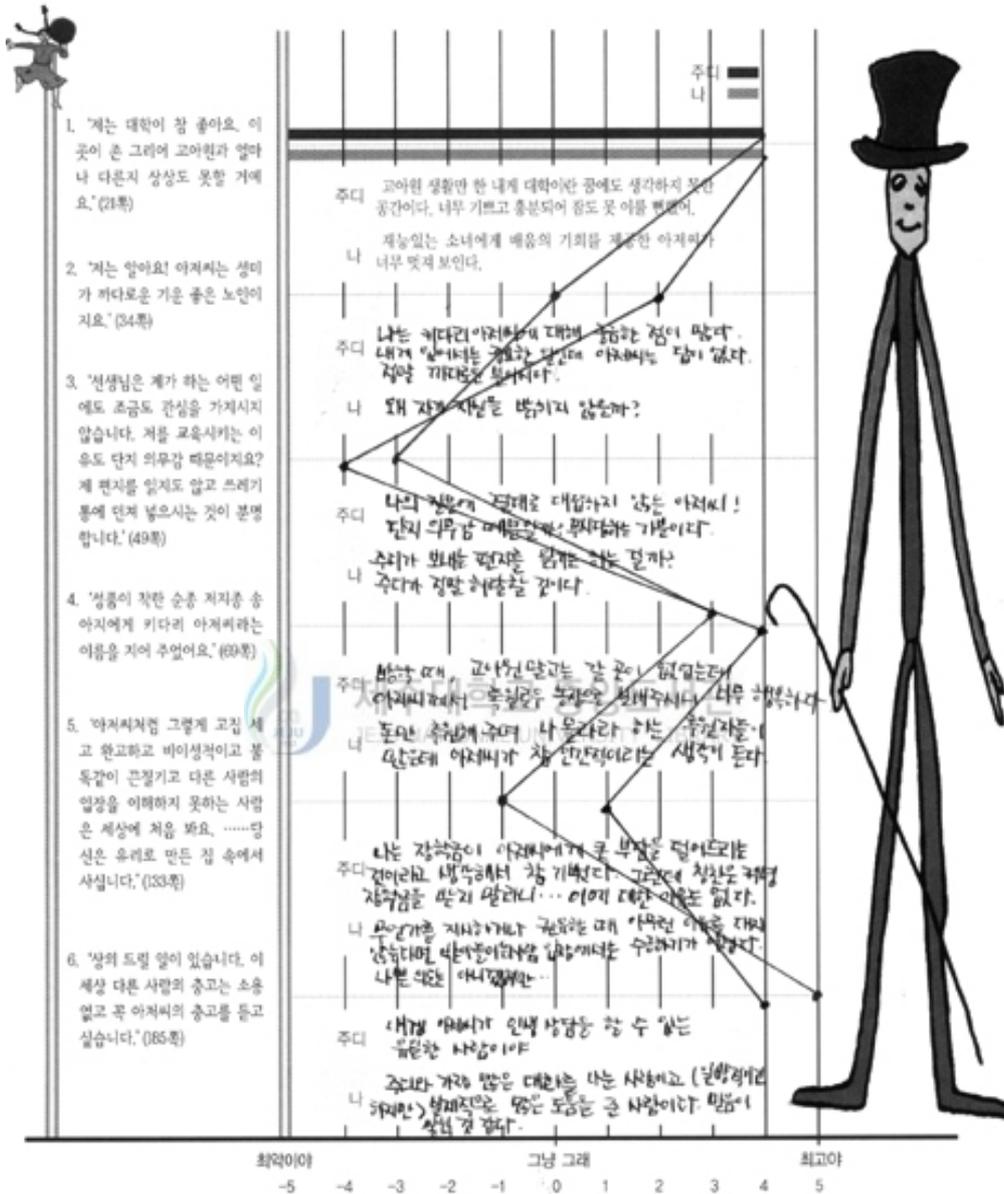
(2) 활동 사례

다음은 「키다리 아저씨」¹⁹⁾를 읽고 주인공 주디의 편지 속에 담긴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호감도를 그려본 사례이다.

18) 형지영(2001),『통합적 독서교육(상)』, 인간과 자연사, p.106.

19) 이 작품의 주인공 주디는 고아원에서 자라지만, 재치 있는 글솜씨를 인정받아 고아원 이사들 중 한 사람의 후원으로 대학에 가게 된다. 그 후원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주디를 대학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매달 편지를 쓸 것을 요구한다. 이 소설은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키다리아저씨에 대한 주디와 나의 호감도 그래프



나아가 주디의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호감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디라면 어떤 호감도를 가질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막대그래프로 그리고 그 끝 지점을 연결하여 감정 곡선을 만들어 보도록 했다.

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한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감정의 굴곡이 존재함을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연구자가 위 작품의 지도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사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수-학습 지도안

도서명 /영역	키다리 아저씨 / 외국문학	지은이	진 웹스터
지도방법	문제제시 후 개인발표 및 토의·토론	지도대상	중 1, 2
지도일시	2003. 4. 12 (100분)	지도장소	○○○ 독서문화원 제3토론실
학습목표	1.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2. 문학이 인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3. 작품에 담긴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창의적 요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단계	교수-학습활동		유의점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발표문제를 제시한다. 1. 주디와 함께 독서 메모를 해보고, 주디가 책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알아보자. 2.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주디가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철부지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한 주디의 행적을 따라가며 주어진 학습지를 이용하여 각 단계에 맞게 빈 칸을 채워보고 설명해 보자. 3.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주디의 다양한 생각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비판적인 요소들을 찾아 비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4.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주디와 나의 호감도 그래프 작성하기 5. 주디가 쓴 최초의 연애편지에 대한 답장을 키다리 아저씨(저비도련님)의 입장에서 써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준비상황을 확인한다. * 학생은 주어진 문제를 보면서 논제를 생각한다.

<p>전개 (60분)</p>	<p>* 논제 1에 주어진 질문에 발표·토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디는 아침에 아무리 많은 숙제가 밀려도 밤에는 학과 공부를 하지 않고, 대신 교양서적을 읽기로 하였다.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무엇이었나? 2. 편지 내용에는 주디가 읽었던 여러 책들과 작가, 그리고 작중 인물이 등장한다. 그것들을 통해 주디가 무엇을 얻었는지 말해 보자.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읽어본 책과 읽고 싶은 책을 표시해 보자. 3. 주디는 폭넓은 독서를 통해 더욱 성숙해 간다. 특히 <제인 에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주디와 제인 에어의 삶을 비교해 보고, 작품감상 후 주디가 갖게 된 생각들을 적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가정환경, 직업, 삶의 변화계기 마련자, 후원자, 연적 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도록 한다. <p>* 논제 2에 대해서 발표·토의한다.</p> <p>: '칠부지 주디 → 정체성 혼란 → 감사하는 마음 →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다 → 이웃에게 관심을 → 진정한 성숙'으로 각 단계에 맞게 주디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 논제 3에 주어진 질문에 발표·토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존 그리어 고아원의 목적은 아흔일곱 명의 고아를 아흔일곱 쌍둥이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2. 오늘 아침 주교가 요한복음 12장 8절 "성경이 우리에게 준 가장 은혜로운 약속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전 예배가 끝난 뒤, 쫓아가서 제 생각을 쏟아부리고 싶었어요. 3. 우리 여성들이 권리를 갖게 되면 남성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4. 여자들의 필요치 않은 장식을 경멸하고 지각 있고 실용적인 옷을 칭찬하던 유식한 교수 양반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수의 부인은 공손한 여자여서 '의상개혁'을 따랐대요. 그런데 교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는 합창단 계집애와 눈이 맞아 도망쳤어요. 5. 나는 현재 사회의 어떤 면을 비판하고 싶은지 이유와 함께 말해보자. <p>* 논제 4) 주디와 나의 호감도 그래프를 만들어 본다.</p> <p>: 이 활동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대한 느낌이나 인상이 사람마다 다를음을 알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감정의 굴곡이 존재함을 알 수 있도록 한다.</p>	<p>* 교사는 학생들이 특정한 주제나 문제, 인물 등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p> <p>*각 논제별로 희망학생을 우선 발표시키고, 토의 후 정리한다.</p> <p>*비관적 읽기</p>
---------------------	---	---

<p>전개 (60분)</p>	<p>* 논제 5에 관련하여 글을 쓰고, 발표한다. : 그가 편지 안한 이유, 누군지 끝까지 밝히지 않은 이유, 맥브라 이드가 초청한 캠프에 가지 못하게 한 이유, 장학금을 받지 말라고 한 이유, 줄리아의 친척 아저씨로 주디에게 나타난 이유, 가장 감명 깊었던 책 이야기, 고아원 설립에 대한 의견, 주디가 작가가 되리라고 확신한 근거, 펜들턴 가의 보수적 성향과 다른 개혁을 지향하는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이 제시될 수 있게 쓰도록 한다.</p>	<p>*창조적 읽기</p>
<p>정리 (10분)</p>	<p>* 작가의 작품 경향 및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정리한다. * 학생들의 독후 활동 결과에 대해 정리한다. :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p>	<p>*학습지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p>
<p>차시예고 (15분)</p>	<p>* 다음 감상 작품으로 김유정<동백꽃>을 선정, 학생들이 작품을 읽기 전에 송창식의 '선운사' 노래 가사 중 일부를 제시한다.</p> <p>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님아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 곳 말이에요</p> <p>노래 가사에 나오는 동백꽃의 느낌과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서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p>	<p>*연상하기 *예측하기</p>

이 책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회모순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작품의 독서지도 시,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제공받는 물질적 혜택들을 그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한 후에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한 주디가 풍부한 독서를 통해 자신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도 주목하도록 했다. 주디가 처한 환경에서 책은 훌륭한 조연자였으며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맘껏 펼치고 다져왔음을 인식시켰다. 더불어 이 책을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도 독서의 효용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다음은 「세상 모든 음악가의 음악 이야기」를 읽고 작품내용과 관련하여 표를 만

들어 본 사례이다. 이를 통해 고대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사 전반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

〈표 3〉 ‘도표 만들기’의 사례

	기원전~3세기 고대	4세기~14세기	15세기~16세기 르네상스	17세기~ 18세기 초 바로크·로코코
특 징	인류의 발생과 동 시에 음악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며 의 식이나 종교행사, 전쟁 등에 음악을 사용한다.	크리스트교가 로마 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모든 문화, 경제, 정치 의 주도권을 잡게 되 고 음악도 종교음악이 중심이 된다.	세속음악과 종 교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16세기말 음악은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화된 다.	종교개혁 이후 정 치적 혼란을 겪었 지만 과학이 발달 한다. 이 시기의 음악은 귀족중심이 된다.
코 드	의식	경건함	조화·균형미	즉흥·장대
음 악 가 들		암브로시오 귀도 다레초	팔레스트리나 : 미사곡을 많이 작곡해서 종교음 악의 최고라는 찬 사를 받음	바흐 헨델 비발디 몬테베르디
	18세기 말~ 19세기 초 고전주의	19세기 전반 낭만주의	19세기 후반 민족주의	20세기 이후 근·현대 음악
특 징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자 유와 평등의 정신이 주창된다. 모범적이 고 누구에게나 이해 되며 시대를 초월하 고 가치있는 예술을 추구한다.	고전주의 형식에서 벗어나 개성적 색채가 짙은 음악이 탄생하 다.	나폴레옹의 몰락 후 러시아와 보헤 미아, 북유럽에 민 족의식이 팽배하 게 된다.	제1·2차 세계 대 전 이후 사고방식 과 미의식이 급격 하게 변함에 따라 새로운 양식과 다 양한 기법이 나타 난다.
코 드	조화된 형식미	개성·감성	민족적 색채	불협화음
음 악 가 들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 : 레퀴엠	쇼팽 슈만 멘델스존 : 한여름밤의 꿈 브람스 슈베르트	드보르작 그리그 엘가 시벨리우스	드뷔시 존케이지 안익태 조지 거쉬인

고전음악의 유용함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전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짐을 느낀다. 이렇게 좋은 음악에 귀가 열리게 하려면 자주 듣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음악가들의 열정이 녹아 있는 음악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와 음악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 함께 이 책을 통해 고대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사 전반의 흐름을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시대의 중요한 코드를 확인하고 책에 언급된 음악가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봄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책의 내용 - 고대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사 전반의 흐름 - 을 보다 효과적으로 짚어볼 수 있었다.

〈세상 모든 음악가의 음악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음악가와 그들의 대표적인 곡에 관련된 일화중심으로 구성된 책으로, 자칫 단편적인 사실을 암기하는 것에 치우친 수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를 지양하고 음악과 관련된 책을 읽는 목적이 결국은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위 작품의 지도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사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4〉 교수-학습 지도안 (음악)

도서명 /영역	세상 모든 음악가의 음악 이야기 /음악	지은이	유미선	
지도방법	문제제시 후 개인발표 및 토의·토론	지도대상	중 1, 2	
지도일시	2003. 8. 16 (100분)	지도장소	○○○ 독서문화원 제3토론실	
학습목표	1. 음악의 발달사를 정리할 수 있다. 2. 음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음악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고전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다.	창의적 요소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단계	교수-학습활동	유의점
도입 (15분)	<p>* 학습목표를 확인한다.</p> <p>* 발표논제를 제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음악의 발달사 정리하기 2. 주어진 지도를 보며 서양음악을 작곡한 음악가들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나라를 연결해 써 보자. 3. 국민악파 음악과 재즈에 대해 살펴보자. 4. 각 시대별로 음악을 주도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5. 음악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찾아보자. 6. '클래식 음악은 고급 음악인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 교사는 준비상황을 확인한다.
전개 (60분)	<p>* 논제 1) 음악의 발달사를 표로 정리하고 발표한다.</p> <p>- 음악사조를 알아보고, 그 시대의 특징과 대표적인 음악가들을 찾아 써 보자.</p> <p>: 고대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사 전반의 흐름을 짚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논제 2)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심화된 질문에 발표·토의한다.</p> <p>: 제시된 그림 자료(세계지도)를 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악가들이 분포한 지역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무엇인지 찾아보자. 2. 서양음악의 모태가 된 그레고리오 성가는 미사 때 불려졌던 무반주 노래이다. 왜 그 당시에는 인간의 목소리로 기도를 했을까? 3. 학교음악에서 배우는 음악과 이론들은 대부분 서양의 것들이다. 왜 서양 음악과 이론들이 현재의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영향을 미칠까? 4. <세상 모든 음악가의 음악 이야기>라는 책 제목을 바꿔 보자. <p>* 논제 3) 주어진 질문에 발표·토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악 속에 민족의식을 담은 작곡가들을 '국민악파'라고 부른다. 다음 국가들의 민족 음악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적어보자. <p>-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핀란드, 체코, 한국 등</p>	*각 논제별로 희망학생을 우선 발표시키고, 토론 후 정리한다.

<p>전개 (60분)</p>	<p>2. 국민악과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한 것일까? 3. 재즈는 어떤 특징을 가진 음악인가? 4. '랩소디 인 블루'의 뜻은 무엇이며, 그 뜻을 생각할 때 음악의 분위기는 어떻게 상상해 보자.</p> <p>* 문제 4)</p> <p>1. 다음은 음악의 발달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각 시대별로 음악을 주도한 것은 무엇일까? ① 원시인들은 모여서 공동체 놀이나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통나무를 두들기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며 흥을 돋구었을 것이다. ② 중세에는 교회의 권위가 높아 한 국가의 왕이라도 교황의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을 정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 발달하였다. ③ '검은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4세가 집정했던 17세기 후반에는 사치가 절정에 이르렀다. 음악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페라와 발레용, 야회용, 무도회용, 왕실 예배음악용 악단 등 8개나 되는 음악 그룹이 있었다. ④ 낭만주의 시대에는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다. 이 시기의 음악가들은 주로 시골에 살며 자연지향적 성향을 지녔다. 자연의 풍경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되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고자 하였다. 이전 시대에 비해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문학 미술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며 개인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자신의 창조적 영감을 중시하며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애썼다. 이 시기의 연주자는 자신의 연주 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매우 어려운 곡을 작곡했다. '바이올린의 마법사'라고 불렸던 파가니니는 아무나 연주할 수 없는 자신만을 위한 바이올린 독주곡을 많이 작곡했다. ⑤ 현대의 음악은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사람이 듣거나 감상하도록 만든 음악으로 도시문명과 인쇄술·사진술·축음술·녹음기술·영화·라디오·텔레비전과 같은 재생 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했다.</p> <p>2. 1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원시사회에서 현대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주도 흐름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p>	<p>*추론하기</p>
<p>전개 (60분)</p>	<p>*각 문제별로 희망 학생을 우선 발표시키고, 토론 후 정리한다.</p> <p>*창조적 읽기</p>	

전개 (60분)	<p>* 논제 5)</p> <p>1. 주어진 기사를 읽어 보면 질병의 치료에 음악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음악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p> <p>2. 나는 어떨 때 음악이 듣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고, 그 때의 효과는 어땠는지 말해보자.</p> <p>- 책의 뒷부분에 기분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p> <p>* 논제 6) 오랜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음악을 일컬어 '고전음악' 또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한다. '클래식 음악은 고급음악인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p>	*비판적 읽기
정리 (10분)	<p>* 음악과 관련된 책을 읽는 목적이 결국은 음악을 감상하는데 있는 것임을 알도록 한다.</p> <p>* 학생들의 독후 활동 결과에 대해 정리한다.</p>	*학습지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
차시예고 (15분)	<p>* 다음 감상 작품으로는 매체 읽기, 영화 <집으로> 선정.</p> <p>1. 여러분이 만약 산골에서 일주일 넘게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자.</p> <p>: 학생들이 영화의 감동을 깊게 느껴 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그저 산골이라고 하면 소풍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컴퓨터도 없고, 전화·영화관·편의점·PC방·만화가계도 없다는 산골의 상황에 대해 말해 준다.</p> <p>2. 할머니, 외할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기억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자.</p>	*연상하기 *예측하기

다음은 인물 「장준하」를 읽고, 장준하²⁰⁾의 역사연표를 만들어 본 사례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 속 사건이 장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 목표]

1. 시대적인 배경과 장준하의 삶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물의 역사 연표를 만들 수 있다.

20) 장준하는 일제시대에서 임시정부, 독립, 한국전쟁, 휴전,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정치 속에서 삶을 살아간 인물이다.

2. 장준하의 삶의 목표를 살펴볼 수 있다.
3. 장준하의 삶을 본보기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 ‘인물의 역사 연표 만들기’의 사례

역사 연표	장준하 연표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919)	1910년대	-출생(1918)
-청산리 전투(1920) -물산장려운동(1923) -6·10만세운동(1926) -광주학생운동(1929)	1920년대	- 어린 시절 교동소학교 입학
-브나로드운동 시작(1931) -윤봉길 의사 의거(1932) -중·일전쟁(1937) -제2차세계대전 발발(1939) -창씨개명(1940)	1930년대	-삭주대관학교 졸업(1933) -브나로드운동 동참(1931) -신성중학교 졸업(1938) -정주신안소학교 교사로 재직(1938)
-징병제 실시 -일본 항복, 한국해방(1945)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1948) -백범 김구 피살 -한국전쟁(1950)	1940년대	-김희숙과 결혼(1943)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비서가 되어 귀국(1945)
-남·북한 휴전(1953) -4·19혁명으로 이끈 이승만 대통령 하야(1960)	1950년대	-〈사상계〉 탄생(1953)
-5·16쿠데타(1961) -제5대 대통령 박정희 취임(1963) -제6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1967)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1960년대	-대한민국 국토 건설본부 기획부장(1961) -막사이사이상(1962) -옥중 출마하여 국회의원 당선(1967)
-제7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1971) -7·4남북공동성명발표, 10월 유신선포. 제8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1972)	1970년대	-유신헌법 시정 백만명 서명운동(1973) -서명운동으로 감옥행(1974)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추락사(1975)

역사 속 인물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가 살다간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장준하가 살다 간 역사 속의 흐름을 살펴본 후,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했다.

역사 속에서 한 인간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역사연표를 만들도록 제시하면 학생들은 힘들어한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활동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어려워할 경우, 역사적 사실들 중 일부분을 제시해 주어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여 완성,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했다.

(3) 기대되는 효과

첫째, 인물의 감정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인물의 행동이 나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무엇인지, 그 행동은 사건전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등 작품전개의 핵심적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다.

둘째,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읽은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고를 보다 구조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별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사건의 내용을 도표화해 그래프로 정리해봄으로써 이야기의 전체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작가의 관점과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의 주요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탐색,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자료 탐색하기

(1) 활동의 의의

이 활동은 작품의 바른 이해를 돕고 관련 지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양하게 탐색해 봄으로써 배경지식을 넓히고 글을 바르게 이해하며 교양과 상식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다. 아울러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의 해설이 담긴 도서, 작가의 작품경향과 심도 깊은 분석이 담긴 논문, 각종 도표나 지도, 사전 등의 문헌자료와 사진, 그림, 영상자료 등을 탐색하여 작품에 접근하는 시각을 넓힌다. 자료를 탐색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

이용과 인터넷 등 통신 활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2) 활동 사례

학생들은 하근찬의 『수난이대』와 『흰종이 수염』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배경이 되었던 태평양전쟁과 6·25전쟁의 원인과 그 결과를 조사해 작품 이해를 위한 자료로 삼았다.

[학습 목표]

1.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2.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3. 전쟁을 막으려는 세계인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되어 쌍방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1953년에 7월 27일에 휴전된 한국전쟁, 국제 연합군의 참전과 중공군의 침략으로까지 확대된 동족상잔의 전쟁이다. 3년 1개월에 걸친 이 전쟁은 남·북한의 전 국토를 폐허화했고, 참전한 외국의 병력에까지 극심한 해를 입혔다. 사망자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 UN과 한국군 합하여 18만 명이며, 민간인 99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6·25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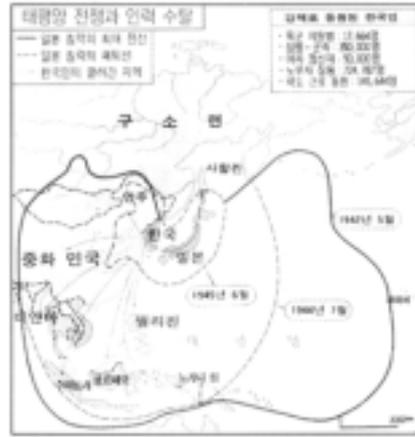
- 전형택 외, <고등학교 역사부도>(천재교육 펴냄) -

<그림 1> '자료 탐색하기'의 사례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영국 등 연합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다. 1931년 만주침략에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41년 12월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고,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일본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8월 15일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받아들임으로써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 선상에서 항복조인식을 하고 태평양전쟁을 막을 내린다.

연이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1939년부터 조선인을 일본의 군수공장과 탄광촌, 비행장 건설의 노동자로 강제 동원하였다.



- 최완기 외, <고등학교 역사부도> (교학사 펴냄)

또한 군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젊은 남자는 중국과 남양 군도에 군인·군속으로 보냈으며, 여성들은 근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의 작업장과 일본군 위안부로 전선에 보냈다.



연구자는 이 두 작품의 독서지도 시, 작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보다는, 작품의 소재를 이해하는 발문을 통해 시대배경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이해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의 지리 역사적 환경을 지도나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독서를 통한 지리 공부', '독서와 함께 하는 역사탐구' 등의 학습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작품의 사회적·문화적 배경, 그리고 작가의 사회적 동기를 고려하며 읽는 적극적 문학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문학작품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내가 겪어 보지 못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문화적 배경, 그리고 작가의 사회적 동기를 이해, 적극적으로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회 현상이나 문화현상에 대해 주체적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세상 모든 음악가의 음악 이야기>를 읽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탐색해 본 사례이다.

○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1010년에 왕위에 올라 39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다윗 왕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나 투석에 능했고 시를 쓰고 작곡도 하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선왕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느라 노심초사한 나머지 왕위에 오른 후 정신상태가 이상해져 광란에 빠지곤 했다. 왕 앞에 불려온 소년 다윗은 기막힌 솜씨로 하프를 연주하여 왕의 광기를 가라앉혔다고 한다. 사울 왕의 총애를 받은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 최근 우리 나라의 한 학자는 음악이 식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를 얻어 냈다. 그 학자는 덩굴식물에 속하는 식물의 두 뿌리를 제각기 다른 온실에 심어놓고 한쪽 온실에는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을 틀고 다른 쪽에는 떠들썩한 록 음악을 계속 틀어줬다고 한다. 그랬더니 클래식 음악을 틀어 준 쪽은 암전하고 곱게 자란 반면 록 음악을 틀어 준 쪽은 덩굴이 제멋대로 뻗어 온실 유리를 부술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 신동현, <재미있는 음악사 이야기>(서울미디어 펴냄) 중 -

음악으로 자폐·뇌성마비도 고쳐요

경기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최안나 씨(28·여)의 직업은 음악치료사다. 음악 치료사는 일반인들에겐 생소하지만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겐 이제 친숙한 용어가 돼 가고 있다.

최 씨는 “음악과 악기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손놀림 발달이나 집중력 및 언어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것이 음악치료”라며 “음악교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복지관 3층에 자리한 20평 남짓한 음악치료실은 피아노, 키보드, 기타, 드럼, 실로

폰, 톤차임 등 각종 악기 70여 가지가 마련돼 있다.

최 씨는 올해 1월 문을 연 이 곳에서 만 3세부터 15세까지의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 25명을 치료한다. 장애가 심하면 개인 치료를 하고 덜한 경우는 장애 분야별로 3명씩 모아 그룹 지도를 한다. 개인지도와 그룹 지도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4일 오전 엄마와 함께 이곳을 찾은 상희 양(가명·6·여)은 희귀병인 레트증후군(손놀림 조절능력 상실을 가져오는 퇴행성 질환) 환자, 최 씨는 상희 양 앞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 주며 상희 양의 시선을 끌었다. 그전까지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던 상희 양의 손놀림이 조금씩 안정돼 가며 최 씨를 쳐다보거나 기타를 만지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상희 양의 어머니는 “음악치료를 받으면서 상희가 집중력이 생겨났고 손놀림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경재 군(가명·15)은 길을 가다 들려오는 음악소리에 발작 증세를 보일 정도로 음악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이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호전됐다.

최 씨는 “지속적으로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제 즉흥연주를 하면서 멜로디를 만들어 낼 정도로 음악과 친숙해졌다.”며 “성격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3. 4. 7〉

- 군인들의 사기를 높인다.
- 백화점의 매출을 올린다.
- 학교에서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 식당에서 손님이 몰릴 때는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려주어 자신도 모르게 식사를 빨리 하고 나가도록 해 더 많은 손님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 등

위 자료를 보면 음악이 질병의 치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장을 촉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음악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다음은 시 작품으로 김소월 <진달래꽃>을 읽고, 김소월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소월의 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의 후렴구를 이용하여, 소월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을 시로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 목표]

1. '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2. 김소월의 시세계를 이해하고, 감상을 표현할 수 있다.

김소월(金素月, 1902~1934)

1902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소월의 본명은 김정식이다. 두 살 때 아버지가 일본인 목도꾼에게 얻어맞아 정신병을 앓게 되자 광산업을 하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속모 계희영으로부터 문학적 감수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가족의 슬픔,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적 슬픔, 그리고 더 나은 시를 써야 한다는 문학적 부담감,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겪으며 느낀 의욕 상실 등이 얽혀 결국 32세의 젊은 나이에 아편을 먹고 자살하고 만다.

소월의 스승 김억



1915년 오산학교에 입학한, 소월은 문학 스승인 안서(岸曙) 김억을 만나 본격적으로 시 창작에 열정을 쏟기 시작했다.

김억은 1921년 <오뇌의 무도>를 최초의 번역시집으로 출판하여 서구의 상징주의 시를 소개한 시인이다.

소월이 살았던 1920년대

1920년대는 일본 제국주의가 한민족을 탄압하고 수탈정책을 한층 더 강화시키던 시기로 일제에 의해 조국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으로 대내적으로는 전 시대의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고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시기였다. 3·1 운동은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각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실패로 말미암아 민족 독립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큰 좌절을 안겨 주어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시대 많은 시인들은 서구시의 모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소월은 전통시나 민요 등에서 시적 모범을 찾아 나름대로의 변화를 꾀하여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소월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소월이 아편을 먹고 죽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소월의 김억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소월이 1920년대에 살았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시를 어렵게 느낀다. 그것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겠고, 끈질기게도 늘어놓는 랩 음악이 유행하고 있는 시대이고 보면 시에 나타나는 함축적이고 내포적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시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학생들은 참고 자료는 다소 재미없게 읽었지만, 소월의 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의 후렴구를 이용,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기존의 시로 패러디해 써 보고 친구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박장대소를 터트리며 새로운 배경지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여겨진다.

(3) 기대되는 효과

첫째, 서로 다른 독서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비교하고 종합할 수 있다.

둘째, 독서 자료에 제시된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기존 지식 및 경험과 연결지어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작품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해 봄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신장시킬 수 있다.

3) 독서 퀴즈, 독서 퍼즐, 독서 게임하기

(1) 활동의 의의

작품의 인지적 이해를 돕고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퀴즈나 퍼즐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중심의 글일 때 특히 활용도가 높다. 글에 나타난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핵심내용과 부가적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정보간의 관련성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등의 인지적 측면에서 정보의 이해와 활용정도

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한국의 역사나 과학과 관련한 정보중심의 글일 때, 읽으면서 퀴즈 문제를 만들게 하거나 읽은 후에 직접 풀어보게 하는 것은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정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 방법은 글의 지적 영역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지단계에서 뿐 아니라 동기 유발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책 제목이나 등장인물 알아 맞추기, 글의 내용에 관한 퀴즈 등을 통해 독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독해력을 측정하는 기회이다. 독서경험이 없는 학생에게는 독서동기를 유발하고 독서욕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활동 사례

다음은 『유시민과 함께 읽는 일본문화 이야기』를 읽고 OX 퀴즈를 통해 후지산을 정복하는 게임을 한 사례이다.

[학습 목표]

1. 일본 문화의 장·단점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2. 일본의 친절 문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독서퀴즈·게임’의 사례 (후지산 정상 정복하기)

<OX 문제와 답>

	문 제	답
1	일본사회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기가 매우 쉬워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다.	X
2	일본인들은 스스로들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O
3	일본의 곳곳엔 사무라이를 형상화한 구조물이 널려 있으며 사무라이 정신은 현대의 일본인에게 요구되는 정신이다.	X
4	질서에 대한 일본인들의 집착은 공간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자연재해 대비책이기도 한 것이다.	O
5	일본은 신용 카드 사용률이 매우 높다.	X
6	일본은 라면이나 국수를 먹을 때 남에 대한 배려 때문에 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다.	X
7	일본은 사회적 관습, 인간관계, 위계질서에 집착하지만 술에 관해서 만큼은 관대하다.	O
8	일본에서의 선물은 국민의 사회적 의무라고 한다.	O
9	일본에서 멋 부리기는 독창성과 개성을 중시한다.	X
10	일본인은 하나 이상의 종교를 갖고 있다.	O
11	'화이트 데이'는 오로지 하얀 초콜릿만 가능하다는 부칙과 함께 일본에서 탄생했다.	O
12	일본에서는 어떤 운동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그만두는 사람이 드물다. 이것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X
13	일본은 자기네 나라를 '니폰', 혹은 '니혼'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태양'이다.	X
14	일본신화에 의하면 그들 종족과 그들의 나라가 '태양신'에게서 솟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들 나라 이름의 어원이 된 것이다.	X
15	일본인들이 인간관계를 말하는 소토는 아웃사이더다.	O
16	일본에서의 '파친코'는 사행성을 지닌 도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오락이다.	O
17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 할 때 꼭 목표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한다.	X

18	일본의 교육제도는 셈을 할 줄 알고 기술적 경쟁력을 갖춘 젊은이들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것이 없다.	0
19	천황은 '국가의 상징'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0
20	일본의 차 번호판은 네 가지 색깔인데, 그 중 흰색은 영업용이다.	X
21	일본의 범죄율이 낮은 것은 검거율이 높아서다.	0
22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난 입장을 말한다.	0
23	일본인들은 인간적 약점에 쉽게 감동하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를 저지른 다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거의 용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0

위의 OX 문제에 대한 보충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개인주의가 발붙을 자리가 별로 없다.
2. 일본인들은 극단을 싫어한다. 중간 어디쯤 속한 것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스스로들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3. 사무라이 정신은 과거의 이미지로만 작용할 뿐이다. 현대 일본인들에게는 좀 더 '야사시이'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4. 일본인들이 질서에 집착하는 이유는 공간 부족과 자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5. 일본에서는 수표나 신용카드를 다른 나라에서만큼 잘 이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매우 낮다.
6. 일본에서는 먹으면서 내는 소리는 음식을 차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 사람들에게 계도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
7. 일본인은 취해야 진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술을 먹고 나서 한 행동은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에 관해서 만큼은 관대하다.
8. 일본에서는 한여름과 한겨울에 선물 시즌이 정해져 있다. 이 시즌이 되면 선물 승배는 광기 수준으로 치달아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난다.
9. 일본인들은 모두가 달라 보이기를 바라지만 그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튀는 것 없이 튀어 보이는 것이 바로 일본의 패션 감각이다.

10. 일본인들은 사물을 규정하거나 자신을 어떤 입장에 고정시키지 않는 생활 태도를 갖고 있어서 하나 이상의 종교를 갖고 있다.
11. 오로지 하얀 초콜릿만 가능하다는 '화이트 데이'는 일본의 초콜릿 업자들이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릿을 받은 지 한 달 후에 연인에게 다시 선물해야 한다고 선포해 만든 것이다.
12. 일본인들은 무슨 운동이든 소품에 신경을 쓰고 아마추어라도 프로와 같이 완벽하게 복장과 장비를 갖춘다. 즉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쉽게 그만 두지 못한다.
13. 일본인들이 부르는 '니폰', 혹은 '니혼'은 '태양이 솟는 곳'을 뜻한다.
14. 일본 신화에 의하면 그들 종족과 그들의 나라가 '태양의 여신'에서 솟아나왔다고 한다.
15. 일본인들이 말하는 '소토'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아웃사이더다.
16. 일본인들은 집단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항상 남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강한 강박관념이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유시간에 심리적으로나마 혼자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찾음으로써 사회적 의무를 잊어보려고 한다.
17.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함께 패배하는 쪽이 훨씬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다.
18. 일본에서의 학교는 대다수 학생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지식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단지 무언가를 암기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19. 일본 헌법에 의하면, '천황은 국가의 상징이지만 그 지위는 국민의 의지로부터 나오고 그 권한은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20. 흰색은 자가용이고, 푸른색은 영업용이다. 검정색과 노란색은 작은 소형차의 번호판이다.
21. 일본의 범죄율이 낮은 것은 검거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 감옥 생활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이 나라의 속성 때문이다.
22.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난 입장을 말한다. 일본인들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

면서 곁으로는 부드러운 표현을 쓴다. 즉 형식과 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는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기 때문이다. 무언의 상호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3. 일본인들은 인간적 약점에 쉽게 감동한다. 때문에 누군가 실수를 저지른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다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거의 용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위의 활동을 위해, 연구자가 활용한 게임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는 게임판을 준비하고 게임판 ①번 칸에 학생들 각자의 말을 준비해 놓는다.(6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조별로 나누어서 교사 재량껏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교사는 준비된 OX 문제를 읽고, 학생들은 각자 유인물에 자신의 말이 머문 곳의 칸에 답을 적어나가는 방식이다. 셋째, 문제는 모두가 동시에 같은 문제를 풀게 되며 그 문제의 정답 제시 여부에 따라 전진하는 칸 수가 달라진다. 즉 문제를 맞힐 경우에는 두 칸을 전진하며,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는 한 칸만 전진한다. 넷째, 판에 보너스 칸이 세 개 있다. 보너스 칸에 말이 머물렀을 경우, 해당 문제를 맞췄다면 판에 지시된 대로 세 칸을 전진한다. 그리고 틀렸다면 원래대로 한 칸만 전진한다. 단 ⑩번 보너스 칸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한 번만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⑪번 칸에서 벌칙을 받아 ⑭번 칸으로 후퇴할 경우 다시 한번 ⑩번 칸에 말이 놓여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문제를 맞추어도 두 칸만 전진한다. 다섯째, 판에 벌칙 칸이 네 개 있다. 벌칙 칸에 말이 머물렀을 경우, 해당 문제를 맞췄다면 원래대로 두 칸 전진하고, 틀렸다면 해당 벌칙 칸의 지시에 따른다. ⑪번 칸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한 번만 벌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⑪번 칸에서 벌칙을 받아 ⑭번 칸으로 후퇴할 경우 다시 한번 ⑪번 칸에 말이 놓여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문제를 틀려도 ⑭번 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칸 전진한다. 여섯째, ⑲번 칸에는 무조건 머무른다. 즉 ⑱번 칸에서 문제를 맞추었을 경우에도 ⑲번 칸에 머물러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맞출 때까지 ⑳번 칸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이는 ⑳번 칸에서 문제를 틀려 다시 되돌아 왔을 때도 해당된다. 일곱째, ⑳번 칸에서 문제를 맞추면 정상 정복에 성공하여 승자가 된다. 그러나 문제를 틀릴 경우에는 ⑲번 칸으로

되돌아간다. 여덟째, 한 명이 정상을 정복하면 거기서 게임은 끝난다.

학생들은 작품해석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보다 퀴즈를 풀거나 퍼즐을 맞추는 게임 식 독서 활동에 흥미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볼 수 있었다. 이 때, 교사가 작은 상품을 준비하여 정상을 정복한 학생에게 상품을 제공할 경우, 학생은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규칙은 학생들이 재량껏 바꾸어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는 학생들 스스로도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퀴즈 문제와 게임규칙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을 통찰하고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문제 출제 및 해결은 개인 대 개인의 개별적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퀴즈나 퍼즐 풀기 활동은 어디까지나 독서 자료의 인지적 이해를 위한 차원에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작품 이해의 초점을 잡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 활동이 단순히 퀴즈 풀기를 위한 활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문제 출제 시, 글 이해의 핵심적 내용으로 문제를 선별해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 첫째, 독서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꼼꼼하고 정밀한 독서감상 태도를 기른다.
- 둘째, 독서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 셋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넷째, 언제든지 친구들끼리 묻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서 흥미를 가지고 작품 감상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과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사건과 닮은 신문기사 찾기

(1) 활동의 의의

주어진 글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책과 연결짓거나 자신의 배경 경험과 관련 지어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은 사고를 확산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며, 창의력 계발의 기본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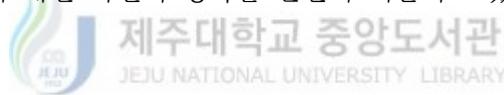
이 활동 역시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을 독자의 현실세계와 통합하는 방법이다. 작품

내용의 이해를 통해 작품전개의 중요한 핵이 되는 사건을 현실세계와 연결시킴으로써 독서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독자는 그가 읽은 글 내용을 그의 의식 속에서 자신의 경험세계와 대응시키며 이해를 조직해 나간다. 작품을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하나의 구조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와의 연관성을 파악해 작품과 현실 인식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문은 현실세계의 축소판이자 삶의 온갖 모습과 다양한 사건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신문을 통해 작품 속의 사건과 닮은 기사를 찾는 활동은 작품과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도울 뿐 아니라 독서경험을 실제세계와 연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품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²¹⁾

(2) 활동 사례

학생들의 활동 사례를 보면 폴 플라이쉬만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읽고 “빌 게이츠와 할머니의 아파트”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연결시켜, 기사문에 담긴 주요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학습 목표]

1. 작은 씨앗 하나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2.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가치 판단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합당한 근거를 대서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빌 게이츠와 할머니의 아파트

작은 것이 큰 것보다 훨씬 빛날 때가 있다. 한 권의 소설보다 한 줄의 시가, 집체만한 기계보다 손톱만한 반도체 칩이 때론 더 위대하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지구촌 의료사업에 2천 4백억 원을 내놓았다. 그는 주장한다. 모든 부자들은 자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 세계 언론은 칭찬한다. 그는 진정한 부자라고.

21) 형지영(2001), 『통합적 독서교육(상)』, 인간과 자연사, p.120.

70대 할머니가 자신의 부동산을 한 대학에 기부했다. 요절한 오빠가 다니던 대학에 장학금으로 써 달라면서 할머니가 내놓은 것은 2억여 원짜리 아파트, 수백 억, 수천 억 원은 아니지만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빌 게이츠가 기부한 건 자신의 재산 60조 원 중 2천 4백억 원, 그러나 할머니가 기부한 건 자신의 전 재산, 빌 게이츠에게는 주고도 남는 부가 더 많지만 할머니가 바친 것은 여생의 모든 것, 생명의 모든 것이었다.

-<중앙일보 2003. 1. 28>-

☞ 나는 위 기사를 읽으면서 '작은 것이 큰 것보다 훨씬 더 빛날 때가 있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빌 게이츠가 내놓은 재산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큰 돈이지만 자신의 재산 중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김화영 할머니가 내놓은 재산은 힘들게 살아 온 자신의 인생과 온 마음이 담긴 것이다.

꼴찌의 달리기

사막같이 뜨거운 운동장에서 학생들은 체육시험으로 오래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선두를 달리던 학생은 증기기관차처럼 지칠 줄 몰랐다. 낙타처럼 느릿느릿 걷고 있던 꼴찌는 얼굴이 온통 일그러져 있었다. 꼴찌는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헐떡거리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렇다고 체육실기 점수로 반영되는 오래달리기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끝까지 달리기만 해도 기본 점수를 주겠다고 선생님은 약속했다. 마지막 한 바퀴 반이 남았을 때, 선두를 달리던 학생이 속력을 내더니 꼴찌를 앞질렀다. 그리곤 자랑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일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선두가 들어온 뒤에도 꼴찌는 한 바퀴 반을 더 돌아야 했다.

그런데 쓰러질 것처럼 힘들게 달리는 꼴찌와 함께 다른 한 명이 뛰고 있었다. 그는 꼴찌의 팔을 끌며 용기를 주었지만, 꼴찌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빨간 색종이 같은 얼굴로 힘겨워 했다. 꼴찌를 격려하던 학생은 전국대회에서 입상까지 했던 그 학교의 육상선수였다. 그는 결승점까지 꼴찌와 함께 달렸다. 그리고 친구를 결승점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꼴찌가 됐다. 백 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체육밖에 없었지만 친구의 힘겨운 질주를 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이철환, <연탄길 2>(삼진기획 펴냄) 중-

☞ ‘꿀찌의 달리기’에서 꿀찌가 된 친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백 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체육밖에 없었지만, 그 체육 점수마저도 꿀찌로 뛰고 있는 친구를 위해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작은 씨앗을 심는 것 같은 사소한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아름다운 책이다. 학생들과 함께 작은 씨앗 하나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상을 움직이는 조그마한 힘과 같은 문제를 실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다음은 위 작품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읽기 전에 주어진 자료를 읽고 활동한 사례다.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 한 젊은이가 지하철 역 계단을 막 나섰습니다.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근처 가게 차양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를 피하러 젊은이 옆으로 학생 한 명이 뛰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힘’ 헛기침을 하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 오셨습니다. 이번에 잘 차려입은 아가씨가 뺨쪽 거리며 들어 왔습니다. 가게 차양 밑은 비를 피하는 사람으로 꼭 차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때 나이든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지하철 역 앞에서 가게 차양 밑을 잠시 쳐다보더니 그만 아가씨 옆을 밀치고 뛰어 들어 왔습니다. 그 바람에, 맨 끝에 있던 젊은이가 그만 차양 바깥으로 밀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아주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젊은이를 모두 다 못 본 척 내리는 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보며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한 동안 네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젊은이가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젊은이는 다섯 개의 비닐우산을 옆구리에 끼고 뛰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차양 밑의 사람들에게 우산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우산을 건네며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젊은이는 우산을 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양 밑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우산을 두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을 헤쳐 나가는 방법이 달라진다. 또 삶의 방식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할아버지와 젊은이의 행동방식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람직한 자세인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지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5) 읽으면서 감상 따라가기

(1) 활동의 의의

독서는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등 읽기의 전 과정에서 사고활동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책을 읽어 가면서 멋진 문장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기억해 두고 싶은 의미 있는 명언을 접하게 되기도 한다. 곳곳에서 우리를 안타깝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만들며 때로는 웃음을 유발하거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하는 인상깊은 장면이 한동안 여운처럼 남는다.

책을 읽어 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의미 있는 글귀나 인상 깊은 장면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한다. 책장을 덮고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좋은 책이라면, 훌륭한 독자일수록 자주 읽기를 멈추고 명상에 잠길 것이다. 읽으면서 감상을 정리해 두면 내용 파악에도 도움이 되고 순간순간 느꼈던 감상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

또한 책을 다 읽고 나서 자신이 적어놓은 구절과 장면들을 다시 읽어본다면 그 책이 내용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좋다. 책을 읽어 가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사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사고의 흐름과 감상의 발자취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²²⁾

22) 형지영(2001), 『통합적 독서교육(상)』, 인간과 자연사, p.132.

(2) 활동 사례

다음은 이금이 작 「너도 하늘말나리아」를 읽으면서 주인공들이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었던 부분을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 목표]

1. 아픔을 극복해 내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인공의 행동에서 받은 느낌을 말할 수 있다.

〈표 6〉 ‘읽으면서 감상 따라가기’의 사례

도서명	너도 하늘말나리아	지은이	이금이
	인상 깊은 장면	느낌과 생각 적기!	
	<p>나는 내 마음을 조개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내 마음 속에 진주를 키우기로 했다. 사실 나는 진짜 진주를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인어 공주의 금관에 장식하는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상상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진주를 마음 속에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이제 어떤 상처도 겁나지 않는다. (98쪽)</p> <p>행복이란 내가 가진 욕심이나 자리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야 얻는 것인가 보다. 아무런 욕심도 바람도 없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신은 어떤 것도 그냥 주거나 가져가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102쪽)</p>	<p>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자신의 고통을 무조건 외면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상처를 오히려 새로운 힘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p> <p>아무도 만족한 삶을 살 수는 없다. 우리 곁에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그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p>	

<p>엄마, 이 꽃 이름이 뭐지 아세요? 하늘말나리예요. 진홍빛 하늘말라니는 꽃뿐만 아니라 수레바퀴처럼 빙 둘러 난 잎도 참 예뻐요. 다른 나리꽃 종류들은 꽃은 화려하지만 땅을 보고 피는데 하늘말나리는 하늘을 향해 피어요. 마치 무언가 간절히 소원을 비는 것 같아요. (170쪽)</p>	<p>하늘말나리꽃, 사실 이 꽃은 아름답다거나 알려진 꽃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들과 산에 피어도 그들만의 색깔과 향기가 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자신들만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겠지? 최고가 되어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이 맡은 영역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p>
--	---

이 책은 본격적인 심리를 다룬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한번쯤 겪을 수 있는 내면의 아픔을 다룬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아픔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작가는 말해 주고 있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공감이나 동일시는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이며, 동시에 나의 정서적 체험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화 함으로써 자신만을 아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와 그들의 가슴 안에 담긴 따뜻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경험의 폭을 넓히고 정신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여겨진다.

2. 인물의 이해를 위한 활동

이야기 글에는 인물이 많이 나온다. 글에서는 작중인물을 외형적 모습, 행동, 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특징을 묘사할 수 있다. 글에 나오는 한 인물의 특징적 묘사는 그 개인에 국한될 수도 있으나, 때로는 그가 처한 사회, 시대, 역사의 상황을 드러낼 수도 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특징적 묘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곧 필

자가 왜 그런 인물을 등장시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하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²³⁾

이를 위해 연구자가 활용한 구체적 지도 방안으로는 인물 탐구표 작성하기, 인물 망 만들기, 인물 비교하기, 작중인물과 닮은 꼴 찾기, 인물 시화전 등이 있다.

1) 인물 탐구표

(1) 활동의 의의

글을 읽는 독자는 작가에 의해 창조된 작품 속의 인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감정이입 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는 주어진 글을 만들어 내고 변형시키는 존재로서 대상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즉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물이다.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축이 되며 작가 또한 주로 인물을 통해서 주제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중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감상의 기본으로, 작품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탐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작중인물에 대해 추상적인 언어로 일반화시켜 정리한 내용을 암기시키기보다 직접 그 인물과 공감하는 실제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등장인물에 대한 탐구 및 대화 나누기의 과정을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캐릭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2) 활동 사례

다음은 『무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과 인간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읽고 각 인물들의 특징을 탐구하도록 한 예이다.

[활동 목표]

1. 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알 수 있다.
2. '무명'의 의미와 연결지어 작품의 주제를 알 수 있다.

23)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2001, pp.186.

24) 형지영, 『통합적 독서교육(상)』, 인간과 자연사, 2001, pp.135~136.

〈표 7〉 ‘인물 탐구표’의 사례

인물 탐구표	
‘나’와 ‘나’가 감방에서 만난 사람들의 죄명과 특징을 알아보자.	
민씨	① 죄명 - 방화 ② 특징 - 나이가 많고 과묵하다. - 윤과의 마찰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보인다. -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다.
윤씨	① 죄명 - 도장 위조죄, 사기 ② 특징 -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 식탐으로 계속 똥질을 한다. - 자기 병 타령을 자주 하고, 공범에 대한 원망 또한 수시로 한다. - 독방으로 옮겨진 후 불교에 귀의한다.
정씨	① 죄명 - 사기 ② 특징 - 식탐이 강하다. - 말주변이 좋다. - 이중인격자다. - 광범위한 지식을 가졌다.
강씨	① 죄명 - 공갈취재 혐의 ② 특징 - 신문사의 기자로 양식 있는 체하며 윤과 정을 몰아세운다. - 대단히 성미가 팔팔하고 비위를 거슬리는 일은 참지 못한다.
나	① 죄명 - 알 수 없다. ② 특징 - 감방 안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자이며 서술자의 역할을 한다. - 신분, 죄명, 성격적인 변화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 점잖아 보인다.

‘무명’은 이광수가 47세 때 옥고를 치르고 보석으로 나온 뒤 대학병원에 입원 중 박정호라는 문하생에게 구술하여 탈고하고, 이듬해 〈문장〉창간호에 발표한 작품으로, 감옥의 병감 생활의 실상을 여실하게 그리면서 무명의 인생을 관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감방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원초적 욕망에 의한 갈등을 파헤친 작품으로, 각 인물들의 특성과 인간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감상하도록 지도했다. 나아가 다음에 제시된 글들에서 알 수 있는 인간이 가진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또 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 민은 미음국물을 앞에 받아 놓고는 연해 나와 내 밥그릇을 바라보는 것 같고, 또 침을 꼴딱 꼴딱 삼키는 모양이 보였다.…… 내가 먹다가 남긴 밥을 윤과 민이 다투게 되며…… 한번은 점심때에 자반 떨치 한 그릇이 들어왔다.…… 정은 여전히 밥 받아들이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떨치 그릇을 받아서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며 살이 많은 것은 골라서 제 그릇에 먼저 덜어 놓고, 대가리와 꼬랑지만을 다른 네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았다.

: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다. 민과 윤은 ‘나’의 밥 때문에 다투게 된 것이고, 정 또한 자신이 떨치를 더 먹기 위해 떨치의 분배를 불공평하게 한 것이다. 즉 작품 속에서는 민과 윤,정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윤과 정은 그러한 모습을 평소에도 자주 보이고 있고, 민의 경우는 ‘나’가 주는 밥 한 숟갈이 없어지게 되자 윤과 다투게 된 점을 근거로 들 수 있겠다.

나 또한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다.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피자를 먹으러 피자헛에 간 적이 있었는데 형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먹었던 기억이 난다. 결국 체해서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먹는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2) 결방의 장질부사 환자는 인생 향락의 밑천을 얻을 양으로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였다. 실패하자, 돈에 대한 탐욕은 마침내 제 집에 불을 놓아 화재 보험금을 사기 하리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감옥살이를 하다가, 인생을 끝마감한 것이다.

: 돈에 대한 욕심이다. 몰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향락의 밑천을 위해 사업을 하였고, 또 향락의 밑천을 위해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 방화를 하였다.

장질부사 환자로 인해 전방을 할 때 알코올 솜을 거의 차지한 정의 모습에서도 물욕을 볼 수 있다. 또 윤이 차입된 삼 원으로 수건과 비누를 사서 호기를 부리는 것도 부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예전에 길을 가다가 어느 가게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너무나 예쁜 시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시계를 갖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시계를 버리고 엄마에게 잃어버렸다고 새로 사달라고 조른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물욕인가 봐요.

다음은 인물 탐구표를 다소 변형한 것으로, 「러브데이씨의 짧은 외출」을 읽고 러브데이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환자기록부로 만들어 작성해 본 사례이다.

[활동 목표]

1. 두 인물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환자기록부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u>이름 : 러브데이</u>	<u>입원일: 지금으로부터 35년 전</u>
<u>가족 관계 : 플리머드에 살고 있는 배다른 여동생</u>	
<u>입원 이유 : 젊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자를 목 졸라 죽이고 자수를 했다.</u>	
<u>현재 상태 : 병원에서 다루기 힘든 환자들을 상대해 주고 부유한 환자의 심부름, 일반 환자들을 보살피고 간호사의 일을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u>	
<u>의사 소견 : 환자지만, 병원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이 곳에선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u>	

「러브데이씨의 짧은 외출」은 영국 작가 이블린 워의 작품으로 정신이상을 보이는 두 인물을 통해 내재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을 다룬 작품이다.

학생들은 등장인물의 대화, 행동, 생각을 통해 직접 묘사되지 않은 인물의 성격을 개발할 수 있다. 그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교사의 지치지 않는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인물을 탐구할 수 있는 방안이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작품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어야 할 것이다.

2) 인물망

(1) 활동의 의의

인물망은 인물을 분석하는 또 다른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는 학생들이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증거로 텍스트에서 예를 든다. 뒷받침하는 예를 찾게 함으로써, 독자들을 텍스트로 돌아가게 하며,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이 풍부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먼저 인물에 관련된 중심문장과 핵심어를 찾아내도록 한다. 그런 다음 서로 성격이 비슷한 항목을 묶어서 꾸러미를 만들도록(범주화²⁵⁾)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범주의 개수를 미리 말해 줄 수도 있다.

(2) 활동 사례

다음은 『백치 아다다』를 읽고 주인공 아다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작품에서 찾아 본 사례다.

〈표 8〉 ‘인물망 만들기’의 사례

1. 착하다(성실하다, 순진하다)	2. 천치, 백치 (정신적 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구박에도 꼭 참는다. - 남편이 구박해도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려 한다. - 능력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해 보려는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날마다 일을 저지른다. - 둔한 머리를 갖고 있다. - 자신을 아다다로 불러도 가만히 있다. - 자신의 모자람을 이용하려는 남편과 수룡이의 의도를 모르고 그들에게 넘어간다.

25) 범주화란 어떤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더 상위의 개념으로 묶거나, 더 하위의 세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범주화의 개념은 읽은 글의 내용을 정리할 때에 유용하다. 즉 글을 읽으면서 서 각 문단별로 중심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중심내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문단을 묶는 것이다.

3. 병어리(육체적 불구)	4. 돈을 싫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이 안 된다. - 지참금을 갖고 시집갈 수 밖에 없었다. -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이 자신을 떠난 이유가 돈 때문이라 생각한다. - 수룡이의 돈을 버린다. - 돈이 자신의 행복을 뺏었다고 생각한다.

☞ 아다다가 꿈꾸는 행복한 삶은, 돈을 싫어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아다다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이고 소박한 삶을 행복이라 생각한다.

이 작품은 인간의 보편적 문제를 다룬 계몽주의 작품이다. 인간의 삶은 복잡하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려고 한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조건은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인간 자체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잘못이 생기기도 한다. 즉 이 작품은 인간 조건이 어떻게 인간 자체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도 작중인물들처럼 물질이나 조건에 의해서 인간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작품 속 작중인물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연구자가 위 작품의 지도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사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9〉 교수-학습 지도안

도서명 /영역	백치 아다다 / 한국문학	지은이	계몽목
지도방법	문제제시 후 개인발표 및 토론	지도대상	중 1, 2
지도일시	2003. 5. 3 (100분)	지도장소	○○○ 독서문화원 제3토론실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 주인공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있다. 3. 존재와 소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창의적 요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단계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도입 (15분)	<p>* 학습목표를 확인한다.</p> <p>* 발표논제를 제시한다.</p> <p>1. 아다다의 삶을 살펴보고 주어진 물음에 답해 보자. : 부모로부터 박해 → (결혼) 시집 식구의 사랑 → (소박) 부모의 박해 → (떠남) 수롱이의 사랑 → (돈을 버림) 아다다의 죽음</p> <p>2. 인물망 완성하기 : 아다다의 특징을 적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텍스트에서 찾아 적기</p> <p>3. '확실이'란 이름이 있으면서도 '아다다'라 불린 주인공을 생각하며 주어진 질문에 답해 보자.</p> <p>4. 존재양식과 소유양식에 관련된 지문을 읽고 제시된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p> <p>5. 그녀를 이름 그대로 '확실이'라고 불렀다면 어땠을지, 아다다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이름 '확실이'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담긴 글을 써 보자.</p>	*교사는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전개 (60분)	<p>* 논제 1에 주어진 질문에 발표·토의한다.</p> <p>1. 아다다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p> <p>2. 결혼을 통해서 아다다가 시집 식구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 때문인가?</p> <p>3. 아다다가 시집에서 소박맞은 이유는?</p> <p>4. 수롱이에게 있어 아다다는 어떤 의미였는가?</p> <p>5. 아다다는 왜 죽었는가?</p> <p>* 논제 2에 대해서 발표·토의한다.</p> <p>* 논제 3에 주어진 질문에 발표·토의한다.</p> <p>1. 아래의 글은 작품의 첫 부분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다다의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그릇이 땅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고 들었는데 마당에는 아무도 없다. 부엌에 쥐가 들었나? 셋문을 열어 보려니까, “아 아아 아이 아아 아아……” 하는 소리가 뒤란 곁으로 들려온다.』</p>	*교사는 학생들이 특정한 주제나 문제, 인물 등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p>전개 (60분)</p>	<p>2. '확실이'라는 본명이 있지만 아다다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p> <p>3. 작가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 아다다를 결함 있는 인물로 나타냈다. 그것은 아다다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가?</p> <p>4. 아다다가 돈을 바닷물에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p> <p>5. 온전치 못한 아다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 보자.</p> <p>* 논제 4에 주어진 질문에 발표·토의한다.</p> <p>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다. 아래 삶의 양식을 통해서 인물들을 나누어 보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갈등에 대해서 말해 보자.</p> <p>『에리히 프롬은 삶의 양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존재양식과 소유양식으로 구별해 설명했다. 소유양식은 무엇을 획득함으로써 삶의 조건을 구비해 나가는 태도를 일컫는데요. 존재양식은 존재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태도를 일컫는다.』</p> <p>2. 아다다의 시부모는 남편과 다르게 아다다를 지켜주려 했었다. 그러나 끝까지 그녀를 지켜주지는 못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이유를 말해 보자.</p> <p>3. 아다다와 수롱이의 관계가 깨진 이유를 설명하고 수롱이의 행동을 비판해 보자.</p> <p>『주먹을 부르짖 채 우상같이 서서, 굽실거리는 물결만 그저 뚫어져라 쏘아보고 섰는 수롱이는 그 물 속에 영원히 잠들려는 아다다를 못 잊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흘러 버린 그 돈이 차마 아까워서인가?』</p> <p>* 논제 5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담긴 글을 쓴다. : '아다다'라는 이름에는 그녀가 갖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조건들이 숨어 있다. 그녀를 이름 그대로 '확실이'라고 불렀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지 생각해 본다.</p>	<p>*추론하기</p> <p>*각 논제 별로 희망 학생을 우선 발표시키고, 토론 후 정리한다.</p> <p>*비판적 읽기</p> <p>*창조적 읽기</p>
<p>정리 (10분)</p>	<p>* 이 작품은 인간의 조건이 어떻게 인간 자체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도 작중인물처럼 물질이나 조건에 의해 인간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p> <p>* 학생들의 독후활동 결과에 대해 정리한다. :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p>	<p>*학습지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p>

<p>차시예고 (15분)</p>	<p>* 다음 감상 작품으로 이태준 <달밤>을 선정, 이태준의 작품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늙은이, 농투성이, 퇴기 등 모두가 생활의 전면에서 이탈되어 가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달밤'은 모자라는 황수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이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임을 설명한다.</p> <p>학생들이 작품을 읽기 전에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상황을 제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늦여름 밤 한적한 공원에서 불빛 없는 길을 밝은 달빛을 받으며 걷고 있습니다. 길을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밝은 달빛을 받으며 홀로 걷고 있습니다. </p> <p>주어진 공간적·시간적 상황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때 달을 보며 나올 수 있는 말을, 지금 자신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생각이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한다.</p>	<p>*필독<달밤> 읽기 - 특정한 주제, 문제와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도록 한다.</p> <p>*연상하기</p>
-----------------------	---	--

3) 인물 비교하기

(1) 활동의 의의

인물은 모든 사건의 중심으로서 인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알고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또한 인물탐구와 비교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바른 삶의 태도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인물은 단순히 글 속의 인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글을 읽는 사람의 생각과 실제생활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인물은 그대로 삶의 지표가 되고 인생의 스승이 되어 독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정적인 인물도 그의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비판의 과정을 통해 역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길 수 있다. 긍정적인 인물이나 부정적인 인물이나 모두 우리 삶과

인생에 많은 의미와 여운을 남기는 것이다.²⁶⁾

그러므로 자신이 읽은 책 속의 인물을 자꾸 불러내어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작품의 인물과 비교²⁷⁾해 보고 나아가 자기자신, 자기 주변의 인물과 공통점, 차이점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물 순례와 탐방, 비교를 통해 사람과 삶을 보는 시각이 길러질 것이다. 이 활동 방안은 작품과 작품간의 통합적 이해, 글과 실제 삶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글의 교훈이 실제 삶과 생활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활동 유형

인물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경우에 따라 선택해 활동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작품 속 인물끼리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는 작품을 보다 면밀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다른 작품 속의 인물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자신이 읽었던 책 속의 인물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사고를 보다 확대시키고 종합적인 분석력을 키워준다.

셋째, 작품 속 인물을 자기자신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인물의 성격 탐구와 함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 인격형성과 자아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권장할 만한 활동이다.

넷째, 작품 속 인물을 실제인물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작가가 창조한 인물을 작품 속에만 고립시키지 않고 현실세계로 불러내어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인간과 삶을 보는 폭넓은 시각을 길러줄 것이다.

(3) 활동 사례

다음은 『빈처』에 등장하는 대립적인 작중인물들의 비교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26) 형지영, 『통합적 독서교육(상)』, 인간과 자연사, 2001, pp.171.

27) 비교의 기준으로는 이름, 나이, 외모, 직업, 성격, 행동양식, 태도 및 습관, 문제해결 방식, 갈등극복 태도, 주변 인물과의 관계 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비추어 인물을 비교, 대조할 수 있다.

삶을 살피본 사례이다.

[학습 목표]

1. 1920년대 지식인의 삶의 일면을 알 수 있다.
2. 작품 속에서 '대립적 인물'을 파악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알 수 있다.

〈표 10〉 '인물 비교하기'의 사례

	'나'	T
현재 처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작가 지방생	은행을 다니며 경제적 능력이 있다.
상징적 물건	책	양산
	처	처형
현재 처지	무능력한 남편을 위로하며 대신 세간을 팔아가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에서 쌀 투기를 하여 돈을 번 남편 덕으로 물질적으로는 호강하며 살지만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살고 있다.
외향적 모습	당목 옷을 허술하게 차려입고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다.	비단을 내리감고 얼굴에는 부유한 자태가 질질 흐른다. 분으로 숨기려고 애쓴 보람도 없이 눈 위에 퍼렇게 멍 들었다.
추구하는 삶	정신적인 행복 추구 “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의 좋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어요.”	물질적인 행복 추구 남편이 준 돈으로 옷감과 신을 샀다고 기쁨의 빛이 얼굴에 퍼지며 보자기를 풀어 봄

현진건 『빈처』는 정신가치 지향의 가난한 무명작가의 고민을 묘사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자전적 소설이다. 이 작품의 작중 인물 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나', '아내', '은행원 T', '처형'으로, 이들은 각각 '정신'과 '물질'에 정확히 대응된다.

이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은 '정신'(정신적 가치 지향)과 '물질'(물질적 가치 지향) 사이의 갈등이다.

즉 이 작품은 정신 대 물질이라는 빈부의 대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하기에 적절하다. 작품의 이해를 통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행복에 대한 글을 써 봄으로써 글의 교훈이 실제 삶과 생활로 이어지도록 함은 물론, 비판적 활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4) 작중인물과 닮은 꼴 찾기

(1) 활동의 의의

이 활동은 먼저 작중인물에 대한 성격과 심리 파악을 통해 독자가 속한 현실세계의 인물들과 외양이나 성격 등이 비슷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작품과 실제세계의 통합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활동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작중인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인물 비교'가 각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살피는 것이라면, 이 방안은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작중인물의 분위기나 성격에 기초해 비슷한 사람뿐 아니라 비슷한 동물이나 식물을 찾아보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수난시대』의 만수를,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바위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 활동 사례

다음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가 캐스팅 감독이 되어 원작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염두에 두고 알맞은 배우를 직접 캐스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했다.

[학습 목표]

1. 작품에 반영된 시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2. 희곡의 특징을 알 수 있다.
3. 캐스팅 감독이 되어 원작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에 알맞은 배우를 캐스팅할 수 있다.

〈표 11〉 ‘등장인물과 닮은 꼴 찾기’의 사례

	내가 생각하는 등장인물의 성격	캐스팅 시도할 사람	이유
로미오	사랑에 관심이 많다. 왕자병이 좀 있지만, 의리 또한 있다. 줄리엣 속에서만 자신을 찾고 자신을 상실하는 로미오, 해바라기와 같다.	조한선	잘생기고 멋진 그의 모습이 자체가 로미오가 아닌가 싶다. 〈논스톱〉에서 그는 의리가 있으면서도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리엣	수줍은 소녀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강렬한 여인이다. 부모에게 순종적이나 열정적이며 솔직하고 적극적이다.	이영애	드라마 〈불꽃〉에서 그녀는 암전해 보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열정적이고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리엣 역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캐플릿	가부장적인 인물이다. 보수적이다. 사랑보다 배경이나 신분 등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박근형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었던 이미지가 바로 캐플릿과 같은 역이 아닐까 싶다. 영화 〈아버지〉가 생각났다.
캐플릿 부인	남편에 순종적이고, 집안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양미경	〈대장금〉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고전적 이미지는, 남편에게 순종적일 것 같고, 집안에 애정을 가질 것 같다.
유모	수다쟁이, 푼수끼가 있다.	이영자	개그맨 출신이라 말도 잘하고, 외모도 푸근하고, 푼수끼가 다분한 이영자 씨가 생각났다.
신부	젊은 사람들을 잘 이해한다. 개방적인 성격이다.	차인표	영화 〈보리울의 여름〉에서 개방적인 신부 역할로 참 잘 어울렸다.
머큐시오	자제력이 부족하고 경솔하다. 허풍도 있다.	차승원	드라마 〈보디가드〉의 캐릭터가 그대로 살아난 것 같다. 차승원 자체가 머큐시오다.^^*
티볼트	우리 편이 아니면 나쁜 편이라 생각하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다.	차태현	영화 〈첫사랑 사수 꺾기 대회〉에서 우직하고 단순, 무식하게 자신의 신념이나 고집을 주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이 활동은 실제세계와 연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흥미를 보인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단순히 흥미 차원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중 인물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중요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등장인물과 비슷한 인물을 찾아내는 활동을 통해 단지 작품을 하나의 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독자와 상호 반응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물 탐구에 임할 때, 학생들은 등장인물과 비슷한 인물을 선정하고 작품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5) 인물 시화전

(1) 작중인물의 감정과 비슷한 시 찾기

작중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으로 각 인물의 감정과 심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시나 노래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작중인물의 상황이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하여 그 심리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시나 노래 등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2) 활동 사례

다음은 「갯마을」의 주인공 해순이의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비슷한 시²⁸⁾를 찾은 사례다.

[학습 목표]

1. 소설의 구성적 특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2. 갯마을 여인들의 삶의 애환과 그들의 운명을 이해할 수 있다.
3. 바다의 상징적 의미를 알 수 있다.

28) 한기팔 씨의 '먼 바다 푸른 섬 하나'는 1994년에 <풀잎 소리 서러운 날>에 발표된 작품으로 바다, 섬, 눈물을 소재로 사랑과 그리움을 주제로 그린 시이다.

먼 바다 푸른 섬 하나

한기팔

먼 바다 푸른 섬 하나
아름다운 것은
그대 두고 간 하늘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눈물과 한숨으로 고개 숙인
먼 바다
새털 구름 배경을 이룬
섬 하나

뭐랄까
그대 마음 하나 옮겨 앓듯
거기 떠 있네

먼 바다 푸른 섬 하나
아름다운 것은
내가 건널 수 없는 水平線
끝끝내 닿지 못할
그리움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갯마을’은 1953년 <문예>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오영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갯마을’이라는 어촌을 배경으로 바다에 대한 사랑을 지닌 ‘해순’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갯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서민적 정취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짧고 간결한 문체, 서정적 분위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남녀간의 애정 문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바다가 상징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나아가 갯마을에 사는 여인들의 삶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도록 지도했다.

작품에서 바다는 자연이고 산골은 문명화된 도시로 볼 수 있다. 해순이 바다를 그리워하다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도시 탈출을 꿈꾼다.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때가 있다고 한다. 시의 화자 또한 도시의 답답함을 잊고 자연을 가슴에 한껏 담고 싶은,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여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학생들 스스로의 마음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작중인물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작품의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다음은 「백치 아다다」의 주인공인 아다다의 삶이 표현된 노래를 찾아 사레다. 전체적인 노래가사가 작품의 내용에 맞게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다. 결혼을 하지만 남편

이 떠나며 꿈이 깨지고 수룡에게 죽어간 아다다의 비극적인 삶이 잘 표현되어 있다.

- 문주란의 '백치 아다다' -

초여름 산들바람 고운 불에 스칠 때
검은 머리 금비녀에 다홍치마 어여빠라
꽃가마에 미소짓는 말 못 하는 아다다여
차라리 모를 것을 짧은 만남 그 행복

가슴에 못 묻고서 떠나 버린 님 그리워
별 아래 울며 새는 검은 눈에 아~~다다여

알곳은 운명 아래 맑은 순정 보람 없이
비둘기의 깨어진 꿈 풀잎 뿔아 입에 물고
보금자리 쫓겨가는 애처로운 아다다여
산 넘어 바다 건너 행복 찾아 어텔간나

말하라 바다 물결 보았는가 갈매기 떼
간 곳이 어데메뇨 대답 없는 아~~다다여

문주란의 '백치 아다다' 노래가사는 수업 전에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듣고 시작하는 것도 수업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매체활용 방법이다. 독서 전 흥미유발 단계로 노래가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아다다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3. 형식의 변환

독서과정에서 독자가 단순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독서감상을 다른 예술 매체와 통합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종합적인 활동으로 꾸며 볼 수 있다. 이는 감

상의 심화, 발전을 피할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언어활동, 즉 드라마, 미술, 음악, 신체활동 등을 통해 독자의 실제 삶과 감상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게 해 준다.

독서체험을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기화하는 기회는 사고의 기회로 연결되고, 이 사고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가 신장되며 독서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다.²⁹⁾

다음은 위의 활동을 다소 변형한 것으로, 『빛의 유혹에 영혼을 던진 렘브란트』를 읽고 자신이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되어 활동해 본 사례다.

큐레이터가 되다

관람객 : 안녕하세요. 여기에 걸려 있는 작품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나 : 좌측의 작품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1650년 작품인 <교황 인노첸티우스 10세>고, 중앙의 작품은 한스 홀바인의 1533년 작품인 <대사들>이며, 우측의 작품은 렘브란트의 1661년 작품인 <사도 바울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화상>이에요.

관람객 : 요즘 렘브란트의 작품에 왠지 끌려서 그런데, 그의 작품이 다른 두 작품과 비교해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 : 그럼요.



<그림 3, 4, 5> '형식의 변환'의 사례

29) 형지영, 통합적 독서교육(상), 인간과 자연사, 2001, pp.222.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와 〈대사들〉은 렘브란트 이전 시대의 초상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때의 초상화는 형식적인 표현과 자세, 화려한 의상을 통해 모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시도했어요. 즉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죠. 하지만 렘브란트의 〈사도 바울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화상〉과 같은 초상화들은 웅장함이나 사치스러움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감상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대상의 얼굴에 집중되어서 감상하시는 분들은 오직 모델의 얼굴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 작품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사회상을 이해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알아보았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화가지만, 생존시에는 조국으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불운한 삶을 마감한 천재화가였다. 그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서, 그 시대의 요구가 무엇이었고, 그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은 학생들 스스로가 큐레이터가 되어 관람객의 질문에 작품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하여 답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단순히 책만 읽을 때는 교사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답을 못했으나, 이 활동에 임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책을 찾아 확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교사는 다양한 방안으로 학생들을 독서의 현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위 작품의 지도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사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12〉 교수-학습 지도안

도서명 /영역	빛의 유혹에 영혼을 던진 렘브란트 / 미술, 인물	지은이	노성두
지도방법	문제제시 후 개인발표 및 토의·토론	지도대상	중 1, 2
지도일시	2004. 1. 17 (100분)	지도장소	○○○ 독서문화원 제 3토론실

<p>전개 (60분)</p>	<p>* 문제 3에 주어진 질문에 발표·토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렘브란트가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장면에서 등장하는 갖가지 슬픔의 표정들, 그리고 아가멤논 왕의 비길 데 없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머릿수건을 씌었다는 티탄테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며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2. 다음은 집단 초상화 작품인 ‘프랑스 반닝 코크 대위가 중위에게 시민 사수대의 출발 명령을 하달시킨다.’의 모델들인 사수 조합원의 반응이다. 『“아니, 누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오고, 왜 내 얼굴은 남들 어깨 뒤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도 자네 얼굴은 정면으로나 보이지, 내 얼굴은 뒤통수밖에없다고.” “그것도 팔자 좋으신 말씀이여. 내 얼굴은 그늘에 가려서 숫제 검댕이를 뒤집어 쓴 꼬락서니 아닌가.”』 이런 주문자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렘브란트가 이루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가? 3. 칼뱅주의에서는 종교 미술을 그리는 화가들에게 <성서>에 나오지 않는 기적 이야기나 성자들의 일화는 그릴 수 없다고 금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칼뱅주의 학교를 다녔던 렘브란트는 이러한 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의 작품 ‘아브라함과 이사악’을 예로 들어 말해 보자. 4. 키아로스쿠로는 화폭의 많은 부분을 어둡게 처리하면서 동시에 캔버스의 특정 부분을 밝게 처리하는 기법이다. 렘브란트가 이러한 기법으로 얻으려고 한 효과는 무엇일까? 5.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통해 렘브란트가 얻으려고 한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작품 ‘프랑스 반닝 코크 대위가 중위에게 시민 사수대의 출발 명령을 하달시킨다’를 해석해 보자. 6. 루벤스는 이탈리아의 바로크 미술을 제 것으로 소화하고 북부유럽의 미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쁨진 토양을 마련한 최고의 명예와 부를 쌓았던 화가다. 이런 루벤스와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다 조용히 생을 마감한 렘브란트는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된다. 루벤스와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리다’라는 동명의 작품을 보고, 두 작품을 비교해 보자. <p>* 문제 4) 디에고 벨라스게스 『교황인노켄티우스 10세 (1650)』, 한스 홀바인 『대사들 (1533)』, 렘브란트 『사도 바울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화상 (1661)』의 세 작품을 가지고,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되어 활동해 본다.</p>	<p>*각 문제별로 희망 학생을 우선 발표시키고, 토론 후 정리한다.</p> <p>*추론하기</p> <p>*창조적 읽기</p>
---------------------	---	--

정리 (10분)	<p>* 17세기 시대적 배경 정리, 그 시대의 요구가 무엇이었고, 렘브란트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한다.</p> <p>* 학생들의 독후 활동 결과에 대해 정리한다.</p>	
차시예고 (15분)	<p>* 다음 감상 작품으로 O. 헨리의 <개심> 선정, 이 작품은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로 하여금 미소를 머금게 하는 작품으로 인물의 심리 변화와 작품의 결말을 이용해 다르게 볼 수 있음을 알려준다.</p> <p>* 학생들이 작품을 읽기 전에 신문에 난 기사, 편지글을 제시한다.</p> <p>『저는 도둑이 될 뻔한 중 3짜리 소년입니다. 가게 안에 있던 최신형 컴퓨터와 모니터를 보고 흠치려했으나 창문을 깨고 침입하려는 순간 옆 집에서 인기척이 들려 도망쳤습니다.</p> <p>집안 형편상 컴퓨터를 가질 처지가 안 돼 가게 안을 보는 순간 잠시나마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저는 칼도 갖고 있어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큰 일을 저지를 뻔했습니다.</p> <p>그러나 도망친 뒤 많이 후회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와 함께 보낸 3천원은 가게 창문을 깬 것에 대한 변상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p> <p>- 2002년 1월 9일- (2002. 1. 11. <연합뉴스> '도둑이 될 뻔한 중3생의 편지' 참고)</p> <p>편지를 보낸 학생을 경찰이 알게 되어 잡았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학생의 잘못을 법으로 심판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말해보자.</p>	<p>*예견하기</p> <p>*추론하기</p>

다음은 영화 <집으로...>³⁰⁾를 감상한 후, 상우가 외할머니와의 동거를 끝내고 헤어지는 장면을 다시 보며 자신이 나레이터가 되어 각 등장인물들의 마음 속 대사를 말해 본 사례이다.

[학습 목표]

1. 주인공 상우가 마음을 열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2. 외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안다.

30) 이 영화는 시골 마을의 풍경을 마치 하나의 화폭처럼 아름답게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 사람들의 내면적인 모습까지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상우가 일곱 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보게 되는 장면을 통해 상우 가족의 아픔을 엿볼 수 있다.

3. 영화를 보고 느낀 감동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나레이터가 되어



외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합니다. 상우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한 번쯤 더 볼 기회가 있을까. 외할머니는 상우가 떠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딸과 손자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보내야만 합니다. 상우 엄마는 상우와 늙은 엄마를 바라보며 자기가 잊고 있던 사랑을 느껴 마음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상우는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가 께어 준 바늘귀를 다 사용하면 누가 할머니의 바늘귀를 끼워 줄까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상우는 외할머니께 자기의 얼굴을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자신의 마음이 외할머니께 드러날 것만 같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뒷통수에 꽂히는 할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내 두 눈 속에 할머니의 모습을 가득 담아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나의 할머니!

〈그림 6, 7, 8〉 ‘영상매체 활용하기’의 사례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매체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다. 그 중에서도 책은 우리에게 가치관과 정체성을 설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 영화는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영상매체인 영화를 통해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읽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짧은 시간에 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세대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해마다 올라가는 이혼율의 수치가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탈시골의 현상으로 농촌과 산골 마을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허물어져 가는 집을 지키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참다운 정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은 할머니나 이웃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생존경쟁을 위해 학원이나 과외로 내몰리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도에 개봉한 <집으로...>는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해주며, 그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을 기억하게 해 준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삭막하게 매말라 있던 상우가 외할머니에 대한 자신의 닫힌 마음을 서서히 열어 가는 과정이다. 외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기다림,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에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 세상의 삶을 알아보고,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외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이웃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생명의 귀중함 등 우리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영화를 활용한 독서지도는 21세기 영상세대에 걸맞는 독서지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고 체계를 대상으로 하여 또 다른 사고를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사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독서지도 방안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상매체인 영화를 활용한 독서지도 방안 또한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위 작품의 지도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사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13〉 교수-학습 지도안

작품명 /영역	집으로 / 영화	감독, 각본	이정향
지도방법	논제제시 후 개인발표 및 토의·토론	지도대상	중 1, 2
지도일시	2003. 8. 23 (100분)	지도장소	○○○ 독서문화원 제 3토론실
학습목표	1. 주인공 상우가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2. 외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안다. 3. 영화를 보고 느낀 감동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창의적 요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단계	교수-학습활동		유의점
도입 (15분)	<p>* 학습목표를 확인한다.</p> <p>* 발표논제를 제시한다.</p> <p>1. 주인공 상우가 외할머니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자.</p> <p>2. 도시생활과 영화 속 산골생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p> <p>3. 외할머니는 침묵으로 말한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p> <p>4. 나레이터가 되어 각 등장인물들의 마음 속 대사를 말해 보자.</p> <p>5. 외할머니의 입장에서 상우에게 마음 속 편지를 써 보자.</p>		*교사는 준비상황을 확인한다.
	<p>* 논제 1) 상우가 외할머니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는 과정을 차례대로 알아보자.</p> <p>: 주어진 영화의 장면이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고, 그 때 상우의 생각은 어떻게 상상해 자유롭게 말하도록 한다.</p> <p>* 논제 2) 화면 가득히 펼쳐지는 산골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다. 도시 생활과 영화 속 산골 생활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장면을 떠올리며 주어진 도표를 완성해 보자.</p> <p>: 도시와 산골의 생활의 차이를 속도, 외형의 모습, 내면의 모습,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말하도록 한다.</p> <p>* 논제 3) 주어진 질문에 발표·토의한다.</p> <p>1. 외할머니는 딸이 선물한 영양제를 병든 이웃 할아버지께 갖다준다. 또한 시장 가게의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초코파이를 산다. 초코파이를 두 개 달라는 외할머니의 말에 가게 할머니는 네 개를 주시면 돈도 받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p>		

<p>전개 (60분)</p>	<p>2. 상우는 외할머니끼 귀머거리 병신이라고 욕하며 요강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외할머니가 주무시는 틈에 은비녀를 빼서 배터리를 사러 나가기도 한다. 그래도 한마디 꾸중도 않고 손자를 돌보시는 외할머니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자.</p> <p>1) 외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상우는 외할머니와 있으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몇 가지 덕목을 배우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덕목을 이야기해 보자.</p> <p>3. 다음 상우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p> <p>■ 옆 동네에 살고 있는 형은 상우에게 로봇을 보여 달라고 하지만 상우는 보여주지 않는다. ■ 누나가 하던 소꿉놀이를 발로 밟아서 모두 망가뜨렸는데도 사과하지 않는다. ■ 옆 동네 형에게 미친 소가 따라온다고 거짓말을 한다.</p> <p>* 논제4) 영화의 일부 장면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발문을 제시한다.</p> <p>1) 상우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얘기해 보자. 2) 내가 상우라고 생각하고, 외할머니와 헤어져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말해 보자. 3) 상우가 어른이 되었을 때, 외할머니와 지냈던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말해 보자.</p> <p>* 논제5) 상우가 할머니와의 동거를 끝내고 헤어지는 장면이다. 자신이 나레이터가 되어서 각 등장인물들의 마음 속 대사를 말해 보자.</p> <p>: 각자 영화 속의 인물이 되어서 상우, 외할머니, 엄마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사를 직접 이야기하게 한다. 또한 내가 상우라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p> <p>* 논제6) 말을 하지 못하는 외할머니는 상우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비록 말도 못하고 글을 몰라 편지도 쓸 수 없지만, 마음 속으로는 편지를 쓸 수 있다. 외할머니의 입장에서 상우에게 마음 속 편지를 써 보자.</p>	<p>*각 논제별로 희망 학생을 우선 발표시키고, 토론 후 정리한다.</p> <p>*각 논제별로 희망 학생을 우선 발표시키고, 토론 후 정리한다.</p> <p>*추론하기</p> <p>*창조적 읽기</p>
---------------------	---	---

정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생각해 본다. * 학생들의 독후 활동 결과에 대해 정리한다. 	*학습지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
차시예고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감상 작품으로 고대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 선정. * 학생들이 작품을 읽기 전에, 읽기 전 활동으로 그림을 제시한다. 그림은 2002년 대한민국 미술축전에 나온 손기환 교수(상명 대학교 예술대학 영상학부 만화 전공)의 작품으로, 그림의 바탕에는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배트맨, 슈퍼맨 등 만화영화 속에서 영웅화된 초능력자들이 그려져 있다. 그 바탕 그림 위에 홍길동을 연속 기법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양에 그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홍길동이 있다는 뜻인지, 누가 진정한 영웅인지, 자유롭게 연상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한다. 	*연상하기 *예견하기

형식적 변환에서의 활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자유로운 언어표현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언어기능과 학생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역할극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할 때, 학생들의 사고력 및 표현력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신장됨을 알 수 있었다.

4. 비판적 활동

1) 토론하기

(1) 활동의 의의

작품을 읽은 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 토론해 보고 싶은 부분 등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구성원 모두가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얻기 위해, 다양한 토론형식으로 그 토론의 주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다. 그 글

과 관련된 느낌이나 각자가 이해한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활동이다.

자신의 감상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거나 반박을 받아봄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감상을 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글에서 얻는 느낌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어떤 작품을 읽는 중이나 읽은 후에 그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2) 활동 사례

토론 활동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토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론 사항이 분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만 학생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하게 된다.

요즘 학생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부모조차 전쟁을 겪지 않았기에 현실감이 없는 전쟁의 참상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실감하게 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전쟁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요즘 학생들과 함께 전쟁의 문제점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하근찬의 소설 '흰 종이 수염'과 '수난시대'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한 개인의 삶에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에선 총칼을 든 군인이 등장하지 않으며 직접 전쟁을 언급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뼈 속 깊이 전쟁이 남긴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모두가 순박한 시골사람들이지만 뜻하지 않은 역사적 사건에 휘말려 불구자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이 작품들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를 배웠으면 했다. 또한 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전쟁이 남긴 상흔들을 알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으면 했다. 요사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라크 전이나 북핵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 전쟁을 막으려는 세계인들의 노력에까지 생각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에 작품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에 실린 반전단체 '인간방패작전'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고 '인간방패'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토론을

해 보았다.

여기서는 토론 6단 논법³¹⁾ 중 네 번째 단계까지만 적용했음을 밝힌다.

反戰 단체 ‘인간방패 작전’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반전 평화운동 단체들이 대규모 ‘인간방패(human shields) 작전’에 돌입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는 각국에서 모여든 반전 운동가들이 이라크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까지 합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간방패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3일 미국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반전 운동가 수십 명이 이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들어가 평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요르단 수도 암만에도 ‘방패 지원자’ 수천 명이 이라크 입국사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간방패프로그램(HSP)’ 사무국장 우즈마 바시르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영 합동군이 ‘오폭’ 주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이라크에서 활동할 회원 명단과 거주 장소를 영국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전 단체들은 특히 만델라 전 대통령에게 인간 방패 참여를 요청했으며, 만델라 전 대통령 측도 진지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요르단에서는 좌파 계열 군소 정당들과 시민 단체들이 인간방패 10만 명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만일 미군 폭격으로 평화 운동가들이 사상할 경우 미국은 민간인 실상에 대한 비난을 면키 힘들겠지만, 미국은 이 문제가 전쟁 계획의 변수가 될 수는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13일 서방 국가 출신의 방패 지원자들을 ‘불나방’에 비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문화일보 2003. 3. 25〉-

31) 토론 6단 논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에 대한 ① 안전에 대해 ② 자신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③ 이유를 찾아 그것을 밝히고, ④ 이유의 옳음을 설명하고, ⑤ 결론에 반대 또는 대조되는 의견이나 생각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⑥ 예외의 경우를 정리하는 것이다. (① 안전 - ② 결론 - ③ 이유 - ④ 설명 - ⑤ 반론 쫓기 - ⑥ 정리)

타레크 아지즈 이라크 부 총리는 “이라크 정부는 인간방패 지원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라크 국민뿐 아니라 아랍 국가와 전세계 자유 국가들이 대미 저항에 참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라크 군 기관지 <알-카디시야>는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10만 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2003. 1. 5>-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측이 미군이 대(對)이라크 군사 작전 기간에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을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전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 회견에서 “인간방패를 배치하는 행위는 군사 전략이 아닌 살인 행위이며 전쟁 범죄”라고 규정하고, “인간방패를 이용하라는 사담 후세인의 지시를 따르는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3. 2. 22>-



교사 : 요즘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인간방패’ 뉴스가 종종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인간방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간방패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환 : ‘인간방패’는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돼요.

교사 :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정환 : ‘인간방패’는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에게 미국이 발포를 하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인권단체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에겐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요. 지금 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 비밀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민승 : 맞아요. 민간인에 대한 발포는 그 즉시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체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전쟁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교사 : 정환이와 민승이가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 했어요. 이에 대해 다른 생각

을 하는 친구는 없나요? 이야기 해 볼까요?

서영 : ‘인간방패’는 이라크 정부에 이용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라크는 대량살상 무기가 숨겨진 장소에 인간방패를 배치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문화와 종교 유적지에 전략적으로 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시설이 파손되거나 민간인이 목숨을 잃으면 연합군 작전에 신뢰가 상실될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연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방패’는 이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알고서도 한다면 그들은 이라크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용병이지 민간인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사 : 모두들 열심히 해 주었어요. 자신의 생각에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중요해요. 평소에도 열심히 해 보세요.

다음은 구엔도끄 『부족하지만 행복해요』 작품을 읽고, 주어진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삼쌍둥이는 꼭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 사례다. 이번에는 토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학습 목표]

1. 삼쌍둥이에 대해 안다.
2. 장애인의 삶과 그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다.
3. 행복의 기준과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1811년 태국에서 한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들은 옆구리가 붙은 채 태어났고, 국왕이었던 라마 2세는 이들을 악의 화신으로 보고 죽여야 한다고 명령했다. 서커스단을 전전하던 이들은 몸이 붙은 채 결혼, 21명의 아이를 낳고 63세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MBC 스페셜 <도끄, 어느 삼쌍둥이의 꿈> 중-

인간의 생명 존엄성과 생존 가능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영국의 삼쌍둥이 분리 수술 결과 건강했던 여자아이인 조디만 살아 남았다고 BBC 방송과 AP 통신 등 외

신이 7일 보도했다. 그러나 조디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했던 메리는 수술 도중 숨졌다. 수술에는 신경전문가와 외과의 등 20여 명의 영국 최고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로마 카톨릭 신자인 쌍둥이의 부모는 당초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며 둘 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자라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의사들은 메리가 조디의 몸에 붙어 심장과 폐 기능을 의지한 채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디도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이에 따라 이들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석달이 되는 11월 안에 둘 다 죽게 될 것이라며 분리 수술을 법원에 신청했다. 카톨릭 교회와 생명단체 등은 부모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며 수술을 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를 죽게 만드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동아일보〉 2000. 11. 8-

1997년 12월 30일과 31일에 걸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메둔사 병원에서는 열아홉 시간째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다. 벤 카슨 박사와 동료들은 탈진 상태에서도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잠비아의 삼쌍둥이 조셉과 루카 만다를 분리하는 수술을 계속했다. 수술을 계속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그 외의 다른 선택은 두 아이 모두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울혈된 혈관 구조부터 시작했다. 이 수술실에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수술용 메스 하나였다. 그 메스를 들고 투명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얇은 혈관벽을 하나씩 자르고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했다. 하나씩 서로 붙어 있던 백 개가 넘는 혈관이 분리되며 절단되었고 새로이 연결되었다. 조셉과 루카를 연결하고 장장 스물다섯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심각한 부종 증세도 보이지 않았고 출혈도 심하지 않았다. 더 기쁜 소식은 혈관의 울혈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두 아이의 뇌의 혈액 순환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조셉과 루카의 수술이 대성공일 뿐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정상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정형 외과 팀의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갔는데 쌍둥이 중 한 명이 벌써 눈을 뜨고 양손으로 내시경을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벤 카슨-

삼쌍둥이, 꼭 분리해야 하나요?

민승 : 나는 삼쌍둥이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함께 붙어있어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쌍둥이를 보면 머리가 붙어서 태어나거나 가슴이 붙어서, 혹은 엉덩이가 붙어서 태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신체의 일부분이 붙어 태어난 삼쌍둥이들은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 생리적인 현상 외에도 모든 일들을 함께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 원칙인 자유로울 권리조차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장기를 둘이 같이 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장기가 혼자서 두 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하나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희생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둘이 함께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삼쌍둥이 분리가 성공한다면 두 명의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정환 : 나는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분리 한다고 더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리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미관상, 겉으로 봐서 보기 싫다고 해서 분리 한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어느 삼쌍둥이 자매는 머리가 붙어서 태어났지만 현재까지도 분리 수술을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하느님이 주신 몸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이지만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생활에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삶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타인의 눈에 비춰지는 겉모습과 생활의 불편함 때문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분리 수술을 하다가 두 생명을 모두 빼앗아 가 버릴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함께 있어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1999년 5월 28일 MBC에서 '도끄 어느 삼쌍둥이의 삶'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방송된적이 있는 이 책은 베트남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동생 구엔 도끄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베트남 전쟁 당시 살포된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인해 '삼쌍둥이'로 태어난 도끄와 베트남, 그들은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닌 쌍생아였다. 기형으로 태어난 두 형제는 고아 아닌 고아로 살면서 단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장애인도 아닌 개성 있는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

요즘 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조건 예쁘고 멋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건강한 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학생들에게, 이번에 함께 살펴 본 도끄의 삶은 행복의 기준과 가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도끄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생각에 비중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한층 의젓해진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흐뭇한 시간이었다.

(3) 기대되는 효과

첫째, 작품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때, 작품의 해석에 도움을 준다.

둘째, 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같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지를 자신의 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들의 해석을 보다 깊고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협동학습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넷째,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논쟁거리나 문제가 있을 때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가지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정보를 찾는 습관을 기르게 함으로써,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이 활동은 논술하기와 연결될 수 있는데, 자신의 주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논술하기

(1) 활동의 의의

독서 감상을 논술로 표현하는 것은 독서과정에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히기 위함이다. 개인적인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인식하는 것은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사고하는 데서 가능해진다.

단순히 책을 읽고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해 내는 능력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된다. 또한 발견한 문제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독선을 피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체험과 사색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 독서를 통해 간접적인 체험을 쌓고 삶의 문제를 논술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의 근거를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서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인식하고 제기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술하기가 도움이 된다. 독서 감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논술형태로 써 보는 것은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를 기르며 사고를 다양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술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력은 더욱 고양될 것이다. 또한 이 활동은 훌륭한 논술 능력의 밑바탕이 되며 삶의 깊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³²⁾



(2) 활동 사례

다음은 『홍길동전』을 읽고 ‘과연 홍길동은 혁명가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보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학습 목표]

1. <홍길동전> 속에 나타난 사회의 모습과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다.
2. 허균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 홍길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나타낼 수 있다.

32) 형지영(2001), 『통합적 독서교육(상)』, 인간과 자연사, p.247.

홍길동은 과연 진정한 혁명가인가

‘홍길동전’을 읽고

홍 석 하

누구나 한 번쯤은 <홍길동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의 영향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길동이 조선시대의 혁명가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홍길동은 조선시대의 진정한 혁명가라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독서토론 시간에 책으로 다시 접하면서 그런 생각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다. 항상 역사의 사건은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5·16사건 역시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어떤 사건을 혁명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반란으로 볼 것인지를 문제는 이렇다하고 정확히 답할 수는 없지만, 혁명이냐 아니냐를 가름짓는 가장 큰 요인은 대다수의 민중들의 소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와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목표를 올바르게 이뤘느냐하는 점일 것이다.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하여 가난한 서민들을 도와준 것은 조선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했던 방향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홍길동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자신이 서자라는 이유로 호부호형하지 못하고 자신의 출세 길이 막혀있는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 개선’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소망을 반영했다할지라도, 후에 병조판서의 자리를 받고 나서 더 이상 활빈당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와 활동의 시작 동기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홍길동이 모든 사람들의 뜻이 반영된 혁명을 위해 힘쓴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홍길동은 “나라의 소유물은 모두 백성이 생산했지만, 분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밑바탕으로 활동했다. 이로 인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목표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게 된다. 병조판서로 임명 받은 후 그는 활빈당 무리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평한 분배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다른 섬으로 떠나버린다. 그가 조선시대의 모순을 고치 고자 했던 진정한 혁명가였다면 벼슬을 받은 후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의 힘을 빌어서든 아니면 그 자리를 사양하고서든 끝까지 처음 의도했던 서민들의 소망을 이루고자 노력했어야 했을 것이다.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혁명이란 것은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지지를 바탕으로 일어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혁명가란 사회 안에 존재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소망과 지지를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혁명의 불을 켜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홍길동은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없으나 조선사회의 서민들의 애환과 소망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보다 적서차별이라는 자신에게 씌워진 굴레를 타파하기 위한 요소가 그의 활동의 더 깊은 원동력이었기에, 그를 조선시대의 혁명가라고까지 높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고전문학의 올바른 작품감상을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홍길동전>의 바른 이해를 위해 작가의 경험과 생각이 작품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또한 시대를 앞서서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작가였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작가와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

논술 활동을 하기 전에 '홍길동은 혁명가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 활동이 선행되었는데, 이 시간에는 학생들의 깊이 있고 폭넓은 생각의 장이 열렸다. 학생들은 그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했음은 물론,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여유로운 모습 또한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홍길동에 대해 가졌던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V. 결 론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물질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취미로서의 독서보다는 생활로서의 독서가 절실하게 되었다.

독서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강조되고 있는 독서의 필요성만큼 독서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동안의 독서교육은 도서관 중심의 책 많이 읽기 운동으로 이어지는 비공식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바른 독서문화가 조성되지 못했다. 특히 지금의 학생들은 다양한 영상매체의 출현으로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구할 수 있게 되어 독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에 올려진 거의 모든 정보들이 문자보다는 영상과 음향에 치중, 정보의 질보다는 시청각적인 화려함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어 학생들은 독서는 재미없고 힘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바람직한 독서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겠다는 필요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독서활동 방안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창의적 사고의 필요성과 독서활동을 통한 창의성의 신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독서교육은 문학작품 읽기지도가 거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독서교육이 이렇게 좁은 의미로만 해석될 수 없다. 교육과정이 제7차로 바뀌면서 보다 다양한 영역의 글 읽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연구자는 문학작품 뿐만 아니라 비문학작품, 나아가 영화를 활용한 삶 읽기,

독서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영역의 작품을 통해 좋은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데에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의 4장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실천했던 여러 가지 독서활동 방안을 소개하였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도표·그래프 이용하기, 자료탐색, 독서퀴즈·퍼즐·게임 활용하기, 사건과 닮은 신문기사 찾기, 읽으면서 감상 따라가기 등), 인물 이해를 위한 활동(인물 탐구표, 인물망, 인물 비교, 등장인물과 닮은 꼴 찾기, 인물시화전), 형식의 변환(큐레이터가 되어 활동하기, 나레이터가 되어 활동하기), 비판적 활동(토론하기, 논술하기), 매체를 이용한 활동(2002년에 개봉한 이정향 감독, 『집으로』) 등으로 나누어 작품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글을 다루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고, 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략적으로 창의적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과정에서 적절한 활동을 선택해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선택해서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인지적 단계뿐만 아니라 내면화 단계까지 이어져 실제 언어생활로 연결될 수 있었음은 물론 독서교육이 추구하는 삶 읽기교육,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든 수업에 독후활동이나 사후질문들에 관련하여 토의수업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글을 읽고 마는 경우보다 더 많은 학습이 일어나게 하였다.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사고, 학습에의 능동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학습효과의 증대를 가져왔다.

연구자는 다매체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매체를 이용한 삶 읽기 교육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영화 감상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함께 이해해 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놀랄 만큼 적극적이었다. 또한 학생의 수준별 능력에 맞는 자료 제시는 학생의 사고력을 신장시켰으며, 실천 중심의 다양한 체험학습과 토의학습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게 하고 사고의 폭과 경험의 폭을 넓혀 주었다. 즉 계획된 다양한 독서활동 방안은 학습자들의 언어 기능과 배경 경험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가져와 단편적인 지식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및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독서교육은 무조건 읽게 하는 단순한 독서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독서 감상 방법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

켜 독서의욕의 고취와 함께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율적인 독서활동을 습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중심이 된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탐구력을 길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총체적인 언어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긍정적인 성장을 가져와 올바른 토론문화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다양한 교육 방안의 연구는 학습자의 독서 동기를 유발시켜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해 줄 뿐 아니라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실현시키는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나아가 독서를 통해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연구자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고교육으로서의 독서교육 방안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창의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개별 수준에 따른 활용과 자료개발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독서교육이 추구하는 목표, 평생 독서자로서의 삶이 가능하고 독서 체험의 공유 및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자료>

- 김봉균 외 7인 공저(2004),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금성출판사.
노명완 외 2인 공저(2004),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주) 교학사.
박영목 외 2인 공저(2004),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주) 교학사.
송하춘 외 2인 공저(2004),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박영사.
심재기 외 4인 공저(2004),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중앙교육.
우한용 외 4인 공저(2004),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민중서림.
최지현 외 1인 공저(2004),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천재교육.
- 계용목(1994), 『백치 아다다』, 양우당.
세익스피어(1998), 『로미오와 줄리엣』, 하서.
오영수(1995), 『갯마을』, 동아출판사.
이광수(1998), 『무명』, 맑은 소리.
이금이(2001), 『너도 하늘말나리아』, 푸른책들.
이블린 워, 『러브데이 씨의 짧은 외출』.
진 웹스터(2000), 『키다리 아저씨』, 문예출판사.
폴 플라이쉬만(2000),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청어람미디어.
하근찬(1999), 『흰 종이 수염』, 다림.
현진건(1995), 『빈처』, 동아출판사.
김소월(2002), 『진달래꽃』, 미래사.
구엔 도꼬(2003), 『부족하지만 행복해요』, 창해.
김민수(2000), 『장준하(인물)』, 사계절.
노성두(2002), 『빛의 유혹에 영혼을 던진 렘브란트(인물, 미술)』, 아이세움.
유미선(2001), 『세상 모든 음악가의 음악 이야기(음악)』, 꿈소담이.
이정향(2002), 『집으로(영화)』, 튜브픽처스.

유시민 편역(2001), 『유시민과 함께 읽는 일본 문화 이야기(문화)』, 푸른나무.

박선이의 외 8인(2003), 『소크라테스(I)』, 한우리독서와언어사고연구소.

박선이의 외 8인(2004), 『소크라테스(I), (II)』, 한우리독서와언어사고연구소.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2003), 『중학교 3학년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
자원부.

남술독서교육연구회(2002), 『국민공통기본교과별 독서교육』, 충청북도교육청.

창의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지도 모형 개발 연구위원회(2001), 『창의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독서지도 모형 개발 연구』, 홍익대학교.

〈단행본〉

김경일(1997), 『독서교육론』, 일조각.

김용철 외(2002),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태일사.

김효정 외(2000),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노명완 외(1988), 『국어교육론』, 갑을출판사.

박수자(1994),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자료원.

박수자(2001), 『읽기지도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영목 외(1995),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박영목(1996), 『국어이해론』, 법인문화사.

손정표(1999), 『신독서지도 방법론』, 태일사.

신헌재, 권혁준 외 편저(1993), 『독서 교육의 이론과 방법』, 박이정.

신헌재, 이재승 편저(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 자료사.

이대규(2001), 『국어교육론』, 교육과학사.

이영(1992), 『창의적 동작 교육』, 교문사.

이재승(1996),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임선하(1995), 『창의성의 초대』, 교보문고.

조영식(1999),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열린 독서지도』, 인간과 자연사.

조영희(1998), 『독서지도의 효율화 방법론』, 신아 출판사.

- 최영환(2003),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원.
- 최현섭 외(2001),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 한국독서학회(2003), 『21세기와 독서지도』, 박이정.
- 한철우, 천경록(1996), 『독서지도 방법』, 교학사.
- 한철우(2001), 『과정중심 독서지도』, 교학사.
- 허덕희(1999),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어린이 독서교육』, 인간과 자연사.
- 허재영(2000), 『교양인을 위한 독서기술』, 박이정.
- 형지영(2001), 『통합적 독서교육(상), (하)』, 인간과 자연사.
- J. W. Irwin(2003), 『독서지도론』, 박이정.

<논문>

- 고길자(1987), “효율적인 독서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명중(1995),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수(1990), “독서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결(2000), “중학생을 위한 독서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자(1993), “읽기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영란(2002), “주제중심 독서활동을 통한 인성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영목(2000),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3호.
- 박종호(1997), “창의적 읽기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송계령(2000),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충현(2001), “문학 감상 능력의 신장을 위한 ‘빈자리 메우기’ 전략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윤정애(2000),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읽기 교수-학습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경일(1998),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윤경(2001), “독서교육의 실태와 독서 교과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
학교 교육대학원.
- 한명숙(1995), “창의적 사고를 수용한 초등문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
교 대학원.
- 허시영(1999),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
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f the Student-Centered Reading Instruction Method
for Creative Development**

Moon, Sun-hee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This study is written with the object of examining methods to develop and express students' creativity and personality. It is often seen that research on teaching methods for reading only involves literature. Case studies also show limitation as school effectiveness was not confirmed. The 7th Education course pursues 'creative development' and the education objective of 'reading' is 'the extension of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comprehensive read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education objectives effectively, the reading instruction method in this study is designed to enhance the essence of the reading education by using variety of texts.

In Chapter II, current reading education was inspected and examined to plot a correct course that should be followed. Seven different kinds of 'reading' textbooks,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now used by high schools in Jeju, were taken as subjects to analyze so that the situation of current reading education would be grasped. The 7th Education Course requires that teaching be focused, not on topic or content, but on objectives. Theories should be materialized in actual classroom performance so that student-centered education can be realized. Because practice should include reading materials used by students in everyday life, the fact that these kinds of materials have extended to diverse media resources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the reality of reading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roper reading education include the student-centered reading education and an integrated activity centered program and emphasis on media input, as well. This will enable students to be creative during classroom participation by emphasizing various activities in meaningful context and actual usage of reading materials.

In Chapter III, creative reading instruction principles and reading learning strategies were investigated by examination of sundry records and studies. The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creative reading as the last step of reading instruction. Creative reading is an extension of the readers' thinking process based on contents. In order to read the given text creatively, students themselves should actively take part in reorganizing, extending and integrating the meaning of the text through the whole process (before, in the middle of and after reading). Since students should be guided to unfold their new ideas based on their reading, reading activities can be most effective with instruction on writing and speaking together. To accomplish this, the students' thought processes must be stimulated and active participation encouraged before, during and after reading the presented materials.

As real situations and correct methods of reading education from chapters II ~ III, were reviewed, in chapter IV, these methods were applied to middle school 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Activities were designed so that students would reveal personality and creativity. They were presented text in various forms and participated in activities to increase understanding, such as, activities for understanding (making a chart or a graph, searching for data, utilizing print media,

having a reading quiz, playing with puzzles and games, searching for similar events in the newspaper, describing reading impressions), activities on characters (making character research graphs, character nets, character comparisons, searching for simila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oeticizing characters), conversion of forms (acting as a curator or a narrator), critical activities (debating, criticizing), and activities using multimedia sources. As a result, proper activities for reading develop the students' latent powers for creative reading. Student-centered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were conducted to lead students to participate voluntarily and to develop students' creativity. This was accomplished by the teachers' introduction of debatable questions in each step of the reading process. In fact, the use of the debate was a primary factor during reading activities and for use as a questionnaire after read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to develop students' creativity, the creation of a student-centered environment is proven to be superior to other methods to encourage creative thinking. Reading class should be not only about grasping contents but also grasping the meaning and understanding of the text in varied points of views. When students have numerous options to choose appropriate situational activities, this study proves that students not only can connect what they learn to real language life, as they move from the text-recognition step to internalizing the matter, they can also understand humanity and life as their reading education continues.